

앞서가는 충남여성의 길잡이

충남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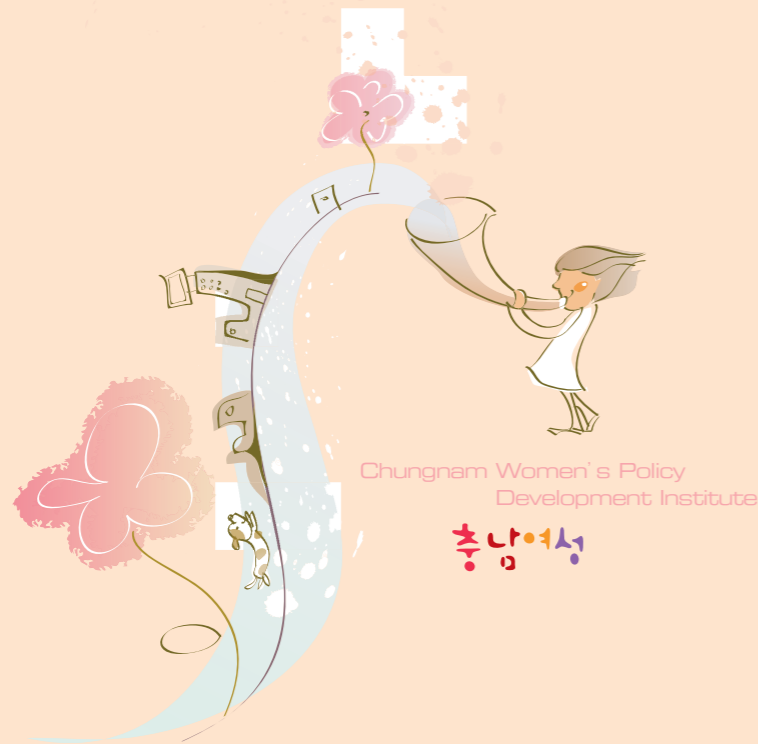
2007 봄 제25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7 Vol.25

앞서가는 충남여성의 길잡이

충남여성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충남여성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목차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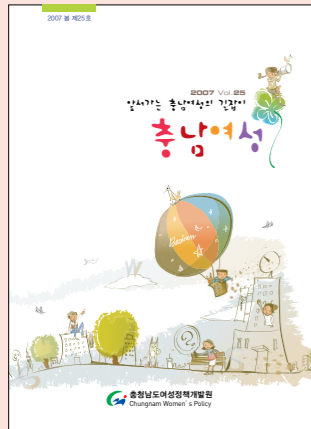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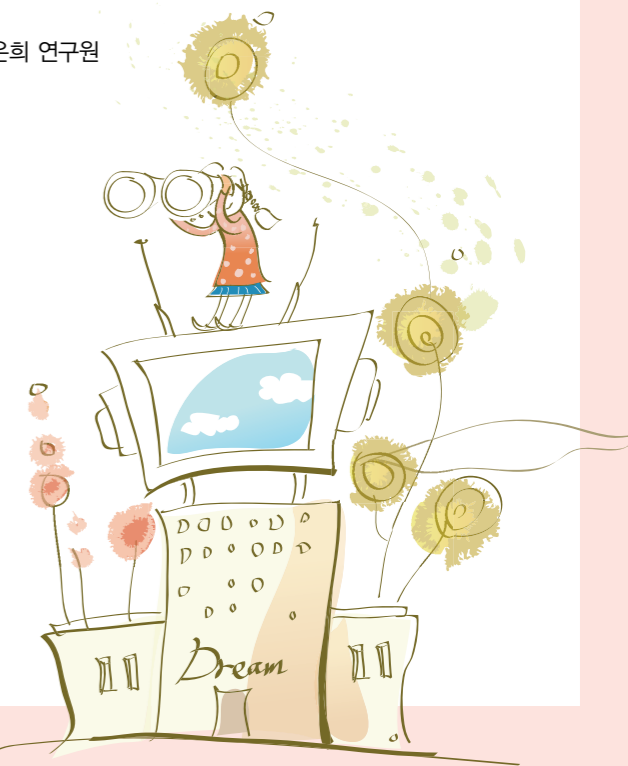


50



58

- 04 1. 2007년 우리는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사업추진계획 / 편집자주
- 08 2. 만나봅시다
-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임원단 초청 인터뷰 / 황창연
- 13 3. 알아봅시다
- 2007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 / 여성가족정책관실
- 16 4. 정책제안
- 충남 노인가구의 손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 최은희 연구원
- 충남지역 여성자원활동가 활성화 방안 / 이은하
- 45 5. 자원봉사
- 자원봉사 현장탐방 / 한병래
- 48 6. 충남지역 현장방문
-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 한은애
- 52 7. 알림
- 도 소식 / 여성계 소식 / 본원 소식
- 64 8. 건강
- 당신은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오영훈
- 68 9. 개원이후 연구 및 교육실적



- 발행일_ 2007년 5월
- 발행처_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발행인_ 김경숙
- 편 집_ 이준일
- 편집위원_ 황창연, 김종철, 이영세, 신영희
- 주 소_ 314-924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
- 전 화_ 042-825-2463
- 팩 스_ 042-825-1832
- 디자인·인쇄_ 정우사 041-855-1630

사업추진계획

편집자 주

● 2007년도 여성가족정책을 살펴보면

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자녀 양육 부담에 대한 경감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②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여성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성매매 축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③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적 여성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모자보건사업 추진 및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②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특성화된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체계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 본원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① 실용적인 연구·특성화된 교육을 위해 도 및 시·군과 공동협력방안 모색 등 연구 및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며 ② 어린이 인성학습원, 보육정보센터 등 운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③ 여성종합센터 기능을 수행하여 전국적인 기관으로 성장·발전하고자 한다.

● 중점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이론과 실체가 조화된 실용성 있는 기본과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충남의 복지 인프라 구축,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역현안과제 등 실용성 있는 13개 정책개발연구를 도정 시책화의 목표로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전문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고자 13 전문교육과정을 준비하였다.

셋째, 도 현안과제 수행 및 부대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연구와 병행한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효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으로 당면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시군방문을 통한 공동협력방안 모색 및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며 지역언론인, 충남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종합센터로서의 가교역할 수행과 적극적인 기관 마케팅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대사업의 행정지원기능 강화로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방안 마련으로 일하는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며 도와의 행정적, 재정적 교량역할 수행으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충청남도 어린이인성학습원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인성중심교육으로 충남의 미래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며,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충남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다.

금년에는 김경숙 원장을 중심으로 도정 및 충남 시군 행정에 직접 반영되고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사업에 한층 매진하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여성 및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 기본연구과제-13개과제 】

구분	연구과제	관련부서
1	충남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지역현안 과제 및 정책개발	복지정책과
2	충남여성백서	여성정책관실
3	충남 사랑을 위한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정책관실
4	귀농농가 실태와 정착지원방안 연구	농정유통과
5	충남여성 중·장기 발전계획	여성정책관실
6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여성정책관실
7	시민운동에서의 여성참여 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여성정책관실
8	여성 농업인의 건강실태와 건강증진 방안 연구	보건위생과
9	충남 성매매 실태 및 대책방안 연구	여성정책관실
10	외국의 국제결혼 가족 정책 및 지원시책 연구	여성정책관실
11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여성정책관실
12	충남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실태조사 - 충남의 복지관련 도우미 현황을 중심으로 -	여성정책관실 복지정책과
13	광역형 희망일터지원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관실

【 기본교육과제-13개과제 】

구분	과정명	일정	인원	교육대상
1	충남 여성자원활동가 연찬회	4.19(목)	30명	충남여성 자원활동가 및 여성자원봉사자 양
2	여성 소자본 창업과정	4.23(월)~5.2(수) (8일, 비합숙)	30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충남거주 여성
3	여성단체 활동가 리더십 개발	4.30(월)	120명	여성단체협의회 임직원(16시군 지회 포함) 및 기타 여성단체 활동가
4	여성 공무원 리더십 교육	5.28(월)~6.1(금) (5일, 비합숙)	30명	행정,소방,교육, 경찰 여성공무원 및 군무원
5	여성정책 및 여성복지 업무 향상과정	6.11(월)~6.15(금) (5일, 비합숙)	30명	여성정책 및 복지업무 담당자
6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8. 20(월)	100명	선거직 진출 희망 여성, 여성단체 활동가, 각종 여성위원, 보육/사회복지 지도자

구분	과정명	일정	인원	교육대상
7	공무원 양성평등과정	6.25(월)~6.29(금) (5일, 비합숙)	30명	행정,소방,교육, 경찰 여성공무원 및 군무원
8~9	공무원 성별영향 평가과정	7.2(월)~7.6(금)(1기) 9.10(월)~9.14(금)(2기)	60명 (기별30명)	행정,소방,교육, 경찰 여성공무원 및 군무원
10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지원과정	8.24(금)	30명	지방의회 의원
11	희망일터지원단 연찬회	9월중	30명	희망일터지원단 관련자
12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10.8(월)~10.30(화)	30명	충남거주 여성 중 초대졸 이상
13	여성의원 연찬회	11.9(금)	30명	각종 여성위원

※ 교육에 대한 문의는 본원 교육실(042-825-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워크샵 및 세미나-5회 】

구분	워크샵 및 세미나	비고
1	개원 8주년 기념세미나	
2	여성폭력관련 사업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워크숍	
3	여성농업인 건강실태 및 건강증진 방안 모색 워크샵	
4	충남의 저출산 및 고령화의 핵심과제 도출 및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5	여성분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임원단 초청 인터뷰

지난 4월 2일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임원단을 모시고 충남의 여성단체에 대한 역할과 방향 등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다.

사회 : 황창연 정책개발실장

- 일 시 : 2007년 4월 2일(월) 09:30
- 장 소 :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 대상자 :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

회 장 **고 희 순** (한국부인회 충청남도지부회장)
 부회장 **김 윤 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
 감 사 **한 병 래** (한국여성유권자 충남연맹회장)
 총 무 **방 은 희** (충청남도새마을부녀회장)



인터뷰 질문내용

사회자 늦었지만, 우선 여성단체 신임 회장단으로 선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앞으로 1년동안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려면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것 같은데 회장단으로서의 각오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고희순 회장 우선 작년(2006년)시절이 생각나네요. 2006년에 한국부인회 충남지부장으로 충남여성단체협의회에 참여를 하여 총무를 맡아, 약간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일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더 넓은 물에서 많은 일을 배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하다 보니 제법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회장직을 맡고 보니 그야말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님들의 지도력을 분받고 임원진과 시군 회장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것 같아요. 어쨌든 모두 잘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Interview

김윤자 부회장

회장님 말씀처럼 저 또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수 있도록 올 한해를 보낼 생각입니다. 가족은 한 사회와 국가의 기본단위로 개인이 가족을 통해 성장하고 역할을 해야 국가가 바로서기 때문에 가족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만 사회와 국가가 안정적이고 발전적일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이 늘어나면서 달라진 언어와 문화의 습득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가정을 일굴수 있도록 우리 여성단체들이 앞장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민자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행복한 한 가정으로 성장하여 사회와 국가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의식 있는 주부, 생각하는 여성, 판단력 있는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사회에 참여하고 회장님을 도와 2007년 한해동안 열심히 활동을 할 것입니다.

방은희 총무

저 또한 총무로서의 역할을 맡으며 얼떨떨한 마음은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충남여성을 위해 무엇을 할까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서로 화합할수 있는 해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각각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우리가 많이 화합할수 있는 계기를 좀더 많이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임원분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한해 농사를 잘 지어볼 생각입니다.

한병래 감사

먼저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니까요..(모두 웃음)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느껴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도 많이 느끼구요. 그래서 깨달은 것인데 이렇게 다양하고 확대된 여성정책과 복지문제의 해결은 행정적 시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그런면에서 개인적으로 여성단체에 참여해서 활동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겨 주셨구요. 여성단체의 임원이기 이전에 한 지역의 여성으로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임원단 회의에서도 이런 마음자세로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라고 해서 잘못을 찾는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의 실천으로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사회자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임원분들은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오셨는데,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성단체는 지역 여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고희순 회장 숫자적으로 많은 회원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활동 성향이 대동소이 하다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행사성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히, 대다수의 남성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단체가 그 단체라는 비아냥을 불식 시키는 길은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인 사업과 활동을 통해서 특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윤자 부회장 회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여성단체로서 각 단체별 목적에 맞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역여성들이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여성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좀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현재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 입니까?

한병래 감사 아직은 여성단체 활동의 상당부분이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은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아쉬운대로 느낀점을 하나 말씀 드려도 될까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만큼 환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지금 봉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적립해 놓았다가 그동안 사회에 봉사한 만큼 그 혜택을 후일 자신이 꼭 필요할 때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여성단체활동을 통해 봉사활동을 30여년 하신 분께서 지난 여름 수재민을 도우러 강원도에 갔다가 몸을 다쳐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지내게 되어 한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이런 때 다른 동료 봉사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한 봉사를 자신의 일

처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끝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서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회자 그동안 여성단체활동을 하시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방은희 총무 충남여성을 위한 작은 보람일수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이 달라질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여성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할라치면 굵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남성들의 시각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저로 인해 이제는 여성들도 사회참여가 확대된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자 혹시 임기중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고희순 회장 작년 5.31선거를 치르면서 느낀 점인데요, 여성 비례대표제의 창구를 통해 도의원3명, 군의원 25명과 지역구출신 도의원1명, 군의원1분이 충남 여성들의 대변자가 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치세계의 이런 선심용 생색내기에 안주하여 다음 선거에도 비례대표 순위에나 줄을 서 볼까? 하는 생각으로 활동을 한다면 여성들의 의회 진출의 길은 요원하다고 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임기가 일년이라 시작만 하고 끝을 보기는 어렵다 생각을 하지만, 다음 선거에 많은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을까 합니다. 우선 8월에 여성정책 개발원이 실시하는 여성정치지도자교육에 많은 인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단체와 협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소한 도 의회, 군 의회의 30%는 여성이 차지해야, 100만 충남 여성의 대변자가 될 것으로 확신 합니다. 단합된 여성의 힘을 결집하여 보여주는 길만이, 양적인 사회진출이 아니라, 질 높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의 길이 바람직한 양성 평등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한 충남여성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희순 회장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사회인으로 또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나를 돌아보며 '완강하게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변화를 맞이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올 것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생각의 전환을 한다면 어떤 분야에서라도 앞서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 하리라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두려움으로 다가오

지만 성공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곧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손잡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여성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부회장님도 한말씀 해 주시지요?

김윤자 부회장 | 여성사회 참여와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행사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전한 가족생활문화 구축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남녀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실현 위해 총력

- 4개 핵심추진 과제 선정, 책임경영 실시 -

충청남도(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는 올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비전을
‘남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과 사회’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핵심 추진전략을 실시한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발표한 핵심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① 충남여성 자치대학, 여성통리장 연찬회, 여성정치지도자 리더십향상 교육, 여성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수혜가 적은 농어촌지역 여성을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②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직업, 취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여성 유망직종 설명회 및 여성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③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과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충남여성포럼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여 토론문화를 정착화 시켜 나갈 것이다. ④ 여성·가족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 있는 도내 여성관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을 지난해 12월 사업계획공고를 통해 기획공모사업 36개, 일반공모사업 4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18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인권보호, 양성평등문화 확산, 보육, 건강한 가정문화 구현, 한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등이다.

둘째,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를 위해

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찾아가는 어린이 성인형극 공연을 16개소에서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활용한 성바로알기 릴레이 교육 등을 운영 한다. ②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성·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지원 한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활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자활능력을 갖춘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주거를 지원하는 그룹홈 제도를 확충한다. ③ 여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성행교정 및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며 세부적으로 가정·성폭력 행위자 성행교정사업과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을 실시한다. ④ 성차별과 장애의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및 지원강화를 위해 여성장애인 전문 컨설턴트를 지정 운영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과 사례관리, 통합적인 정보 제공등을 할 예정이다. ⑤ 통합적 여성정책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충남여성백서 발간, 공무원양성평등 교육,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까지 확대 위촉, 도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도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하기 위해 맞벌이 가족, 한부모가족, 국제결혼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대한 새로운 가족정책이 필요한 시기로

① 금년 3월에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건강가정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학비, 6세미만 아동양육비, 월동비를 지원하며, 자활자립을 위한 가구주 기술교육, 가족상담, 집단상담, 의료서비스, 자녀지도, 가족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가정으로 자립·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과 미혼모 그룹홈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도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부부·가족·문화이해교육, 상담, 자녀 보호 등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④ 결혼 이민자 가족의 사회·가족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결혼 이민자 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을 위해 마을 단위로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가족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여성단체를 통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가족 한마당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부모의 질병, 출산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지원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①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②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③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④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 노인가구의 손자녀양육 지원방안 연구



연구자 : 본원 교육실 최은희 연구원

I 연구 배경 및 방법

1. 연구배경

-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사회의 화두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맞벌이 가족, 이혼가족, 결혼 이민자 가족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변화에 대해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2004년 「건강가정지원법」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이러한 과정속에서 경제활동이나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5년간(2000~2005) 21.9% 증가한데 반해, 조부모와 손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28.5% 증가하여 5만8천 가구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충남은 1,514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가정과 혼혈자녀 983명은 전수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3,787가구의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 대리양육가구로 분류한 저소득 조손가정 173가구 261명(충청남도 내부자료, 2006)의 아동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에 충남 조손가정의 양육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손가정 현황 및 아동 양육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충남의 미래가 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방법

- 첫째, 충남 노인인구의 특성 및 손자녀 양육가구 현황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고, 둘째, 아래 <표 1>과 같이 조손가정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충남 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 및 욕구를 분석하였다.

<표 1> 조사개요

구 분	기 초 조 사	본 조 사	
		조 손 가 정	담 당 공 무 원
조사기간	2006. 10. ~ 11.	2006. 11. ~ 12.	2006. 11. ~ 12.
조사대상	충남지역 조손가정 956가구	수급대상 조손가정, 일반 조손가정 44가구	면접조사를 실시한 공무원 15명
조사지역	충남 9개 시·군	충남 4개 시·군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태안군)	충남 4개 시·군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태안군)
조사방법	담당 공무원의 직접 설문조사	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한 면접조사	구조화된 면접지를 통한 면접조사

II 충남 조손가정의 현황

1. 충남 조손가정 현황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조손가정은 58,101가구로 전체가구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은 6십5만9천여 가구 중 0.6%인 3,787가구가 조손가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0.4%보다 0.2%p가 높은 수치이다.

〈표 6〉 충남 조손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구 분	일반가구	2세대가구-조부모+손자녀		지역별 조손가구 비율
		가 구	비 율	
전 국	15,887,128	58,101	0.4	
충청남도	659,871	3,787	0.6	100
동부	236,823	782	0.3	20.6
읍부	157,362	935	0.6	24.7
면부	265,686	2,070	0.8	54.7

2. 충남 지역별 조손가정 현황

- 충남 지역별 가구대비 조손가정의 비율은 동 지역 0.3%, 읍 지역 0.6%, 면 지역 0.8%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조손가정 가구 수는 동 지역 782가구, 읍 지역 935가구, 면 지역 2,070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조손가정 전체의 54.7%가 상대적으로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충남의 16개 시·군별 가구대비 조손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시 지역은 보령시 0.8%, 논산시 0.8%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은 청양군 1.0% 으로 나타났다. 충남 전체 가구대비 조손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시지역은 천안시 13%, 공주시 9.5% 순이며, 군 지역은 금산군 6.5%, 연기군 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충남 시·군별 조손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지역	일반가구	2세대가구-조부모+손자녀		지역별 조손가구 비율	지역	일반가구	2세대가구-조부모+손자녀		지역별 조손가구 비율
		가 구	비 율				가 구	비 율	
천안시	174,544	492	0.3	13.0	금산군	20,031	144	0.7	6.5
공주시	43,965	295	0.7	9.5	연기군	28,346	161	0.6	6.4

〈표 7〉 충남 시·군별 조손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지역	일반가구	2세대가구-조부모+손자녀		지역별 조손가구 비율	지역	일반가구	2세대가구-조부모+손자녀		지역별 조손가구 비율
		가 구	비 율				가 구	비 율	
보령시	35,089	274	0.8	8.7	부여군	27,721	246	0.9	5.7
아산시	68,263	330	0.5	7.8	서천군	22,885	216	0.9	5.5
서산시	50,380	280	0.6	7.4	청양군	12,421	123	1.0	4.3
논산시	44,347	358	0.8	7.2	홍성군	30,361	209	0.7	3.8
계룡시	9,766	28	0.3	6.5	예산군	29,717	244	0.8	3.7
태안군	21,750	142	0.7	3.2	당진군	40,285	245	0.6	0.7

※ 자료 : 통계청 2005

3. 충남 대리양육가정 현황

- 충남은 총 513명의 아동이 353가정에 위탁되어 보호·양육을 받고 있으며, 조부모에게 위탁된 대리양육이 173가구, 아동 261명으로 가장 많으며, 친인척위탁이 143가구, 일반 위탁가정이 37가 구이다. 조손가정인 대리양육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은 261명으로 한 가구당 평균 1.5명의 아동이 위탁된 것으로 파악된다.
- 대리양육 조손가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천안시와 아산시에 각각 2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이 서산시 24가구, 서천군, 청양군 각각 16가구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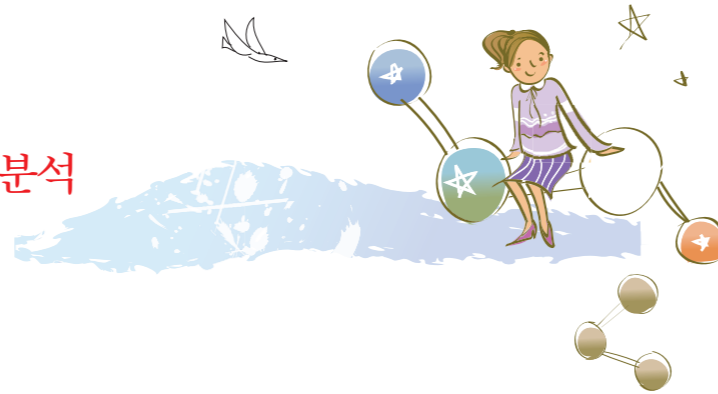
〈표 8〉 충남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

(단위 : 가구(아동수))

시군명	합 계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인 위탁가정	시군명	합 계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인 위탁가정
계	353(513)	173(261)	143(200)	3(52)	금산군	7(11)	2(4)	1(1)	4(6)
천안시	52(68)	25(39)	15(16)	12(13)	연기군	11(16)	5(7)	6(9)	-
공주시	18(27)	6(11)	7(8)	5(8)	부여군	14(22)	10(14)	4(8)	-
보령시	5(6)	3(4)	-	2(2)	서천군	24(32)	16(24)	6(6)	2(2)
아산시	37(61)	25(42)	8(15)	4(4)	청양군	19(33)	16(25)	2(2)	1(6)
서산시	32(47)	24(32)	6(12)	2(3)	홍성군	20(31)	14(20)	5(7)	1(4)
논산시	8(10)	7(9)	-	1(1)	예산군	36(52)	-	36(52)	-
계룡시	12(17)	6(10)	3(4)	3(3)	태안군	46(65)	14(20)	32(45)	-
당진군	12(15)	-	12(15)	-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2005. 12월 기준

III 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 분석



1. 기초조사 분석 결과

1) 기초조사 대상자 일반 현황

- 조사대상 지역은 충남의 16개 시·군 중 조사기간까지 회수된 9개 시·군으로 시 지역 5개소, 군 지역 4개소로, 논산시가 183가구 1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산군 146가구 15.3%, 예산군 128가구 13.4% 순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가구는 총 956가구이며, 수급대상 조손가정은 655가구로 68.5%, 일반 조손가정은 301가구 31.5%로 나타났다. 중소도시는 동지역, 농어촌은 읍·면 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도시 39.6%, 농어촌 60.4%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가구유형으로 수급대상 조손가정 68.5%, 일반 조손가정 31.5%로 구성되었다. 중소도시는 수급가정이 72.0%, 일반 조손가정 28.0%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은 수급 조손가정 66.2%, 일반 조손가정 33.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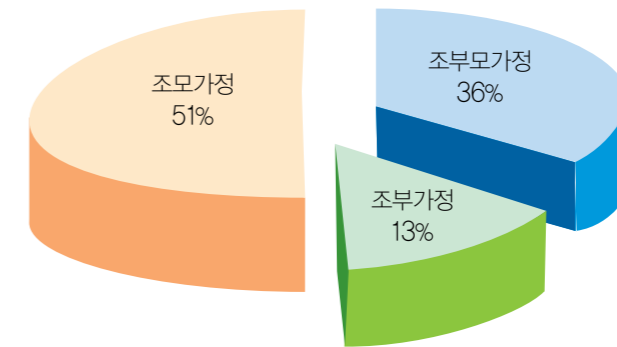
〈표 9〉 기초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조사내용		N	비율	조사내용		N	비율
보 호 자	조부모	348	36.3	가 구 유 형	수급 조손가정	655	68.5
	조 모	483	50.5		일반 조손가정	301	31.5
	조 부	125	13.2		계	956	100.0
	계	956	100.0	지 역	중소도시	379	39.6
※ 조부 : 473명, 평균나이 69.7세, 최소나이 41세, 최대나이 95세					농어촌	577	60.4
※ 조모 : 831명, 평균나이 68세, 최소나이 44세, 최대나이 90세					계	956	100.0

2) 가구유형별 조부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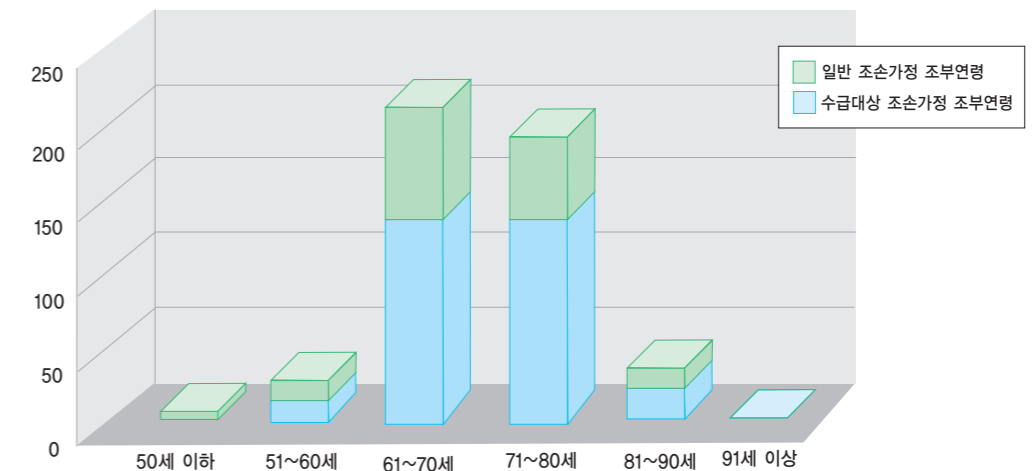
- 손자녀 양육 조부모는 조모 50.5%, 조부 13.2%, 조부모 36.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조모 혼자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2%는 조부 혼자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1〉 조손가정 보호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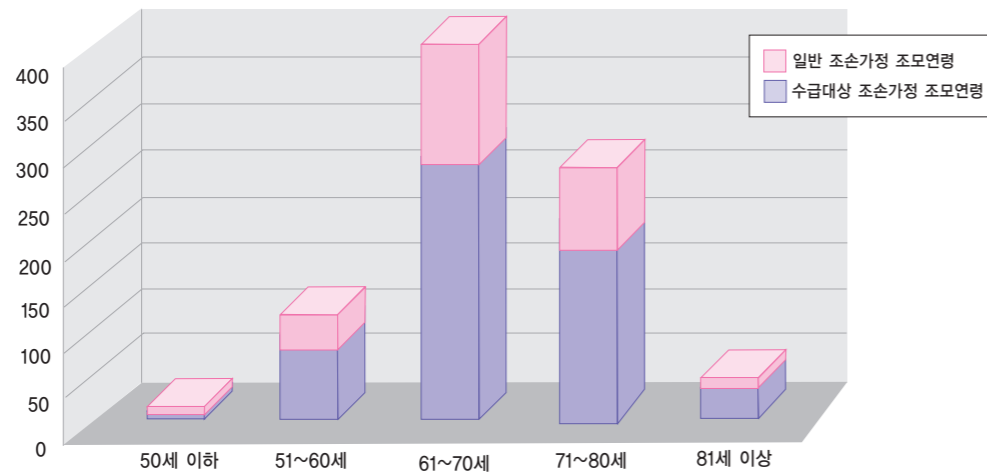
- 수급대상 유형별로 비교하면 수급 조손가정은 71~80세 조부(44.2%)의 비율이 일반 조손가정의 조부(34.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조손가정의 조부 61~70세(51.2%)의 비율이 수급 조손가정의 조부(41.3%)보다 높게 나타났다. 80세 이후의 조부도 수급대상 조손가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2〉 조손가정 조부 연령



- 조손가정의 조모는 총 831명으로 수급대상 조손가정 558명, 일반 조손가정 273명으로 나타났다. 조부와 유사하게 조모의 연령은 61~70세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1~80세 32.9%로 나타나 6·70대가 81%를 차지하고 있다. 80세 이상도 32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대상 조손가정은 60대 이상 86.4%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일반 조손가정은 81.7%로 나타나 수급대상 조손가정이 고령의 조모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3〉 조손가정 조모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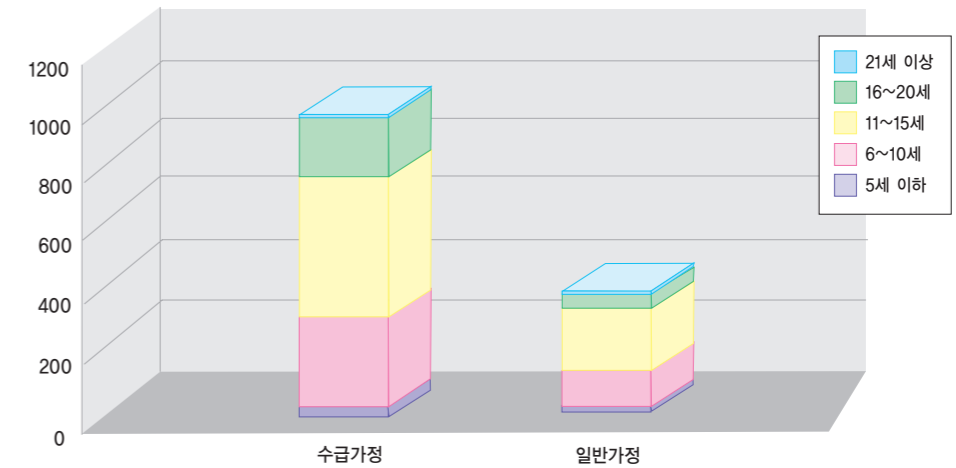
- 조손가정 기초조사 결과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농어촌의 수급대상 조손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구유형별 손자녀 현황

- 기초조사대상 조손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손자녀는 총 1,482명이며, 수급대상 조손가정 1,027명, 일반 조손가정 455명으로 나타났다. 손자가 54.2%로 손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여부에 따른 가정유형에 따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충남지역 조손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손자녀의 수는 1명(53.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2명(39.3%)로 나타났다. 3명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7.2%로 나타났으며, 4명을 양육하는 조손가정은 3가구(0.3%)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가정유형별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급대상 조손가정은 3명 이상이 9.0%인데 반해 일반 조손가정은 4.3%로 나타났다. 수급대상 조손가정은 손자녀 4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이 3가구로 나타났다.

- 충남 조손가정 손자녀의 연령분포는 11~15세의 손자녀 42.4%로 가장 많으며, 6~10세 손자녀 32.1%로 나타나, 74.5%가 6~15세 사이의 아동, 청소년이었다. 5세 이하의 아동도 수급 대상 조손가정 4.8%, 일반 조손가정 7.7%로 나타나 조손가정의 84가구(5.7%)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5〉 조손가정 손자녀 연령분포



- 초등학교 재학이 45.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학교 24.3%, 고등학교 14.4%, 어린이집 9.8%로 나타났다. 다니는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1가구 2.8%였으며, 기타로 응답한 3.4%는 대학생 11명, 직업기술학교 1명, 운전연수 1명, 일용직 1명, 취업 1명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자녀의 비율은 일반 조손가정(14.1%)이 수급 조손가정의 손자녀(7.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비율도 3%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조손가정의 손자녀의 나이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면접조사 분석결과

1) 면접조사 응답자 일반현황

- 조손가정의 조부모 44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조부 7명, 조모 34명이며, 수급대상 조손가정 26가구, 일반 조손가정 18가구이다. 조부모의 연령은 70대가 26명 59.1%로 나타났으며, 60대 20.5%, 50대 11.4%이며, 80대 4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은 시 지역이 45.5%로 천안시 12가구 27.3%, 공주시 8가구 18.2%이며, 군 지역은 54.6%로 부여군과 태안군에서 각각 1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10〉 면접조사 응답자 현황

조사 내용		N	비율	조사 내용		N	비율
성 별	남 성	7	15.9	가 구 유 형	수 급 자	26	59.1
	여 성	34	84.1		비수급자	18	40.9
	계	44	100.0		계	44	100.0
연 령	59세 이하	5	11.4	지 역	천 안	12	27.3
	60~69세	9	20.5		공 주	8	18.2
	70~79세	26	59.1		부 여	12	27.3
	80~89세	4	9.1		태 안	12	27.3
	계	44	100.0		계	44	100.0

2) 조손가정이 된 배경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배경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이혼 및 행방불명이며, 둘째, 가족의 구조 및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해체된 가정으로 부의 알코올 중독,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가구, 모가 암 질병으로 사망한 가구, 부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혼외자 출생으로 인한 양육 전가와 혼외자 출생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 등이다.

3) 생활실태

- 44가구 조손가정의 가족형태는 조부 혼자 양육하는 가구 6가구, 조모가 양육하는 가구 8가구, 조부모가 함께 양육하는 가정 30가구로 나타났다. 27가구가 2명 이상의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었

며, 그중 4명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2가구로 나타났다. 1명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17가구이다.

- 주택유형은 시 지역과 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천안지역의 조손가정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았으며, 부여군, 태안군은 자가인 농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로 생계비를 충당하는 반면, 저소득의 조손가정은 공공근로, 농사 품팔이, 하우스 작업 등으로 생계비를 충당한다.
- 조손가정은 동·면사무소, 이·동장 또는 종교시설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시 지역 손자녀의 경우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며 방과 후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군 지역은 농산물 상품권을 지원하여 아동의 급식을 지원받고 있다.
- 조손가정의 주택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로 세면장 및 화장실이 열악하며,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어서 식사를 챙기기도 힘든 곳도 나타났다.

4) 건강 및 양육실태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연령대는 7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손가정 조부모의 90% 이상이 노인성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조손가정이라 하더라도 조부는 건강문제로 가사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 조사대상 조부의 질환은 혈압, 백내장, 지체장애 5급, 척추질환, 간질환, 전립선 질환, 관절염, 목 디스크, 위 수술 후 약 복용 등이며, 조모 또한 노인성 질환에서 부터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뇌병변 3급장애, 치매초기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점차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조모가 팔 장애와 허리통증이 있음에도 손자녀의 식사준비며 뒷바라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계를 느낀다고 응답한 조모도 있다.
- 조손가정의 아동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어려서 잔병이 많고, 예방접종비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고 있으며, 목에 종기가 계속 자라고 있으나 아이의 거부로 수술하고 있지 못하며, 소아마비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손자의 재활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다.
- 손자녀의 성격은 스스로 공부하며 효행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아동도 있지만, 내성적이고 애어른 같으며 말이 없고 무뚝뚝한 손자녀, 성격장애로 인해 소극적이고 소심한 손자녀, 불만이 많고 폭력적인 손자녀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5)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요구사항

● 조손가정의 손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 사항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우선 손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방과 후 활동 및 학원등록에 관한 욕구이며, 둘째,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욕구로 생계비 지원,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 조부모 자신과 손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그리고 가사지원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로 나타났다. 수급대상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여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동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로 나타났다.

6) 구체적 지원 요구사항

면접조사 과정에서 조손가정 지원욕구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적, 심리적, 교육에 관련한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 일반적 지원사항

조손가정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 내용은 양육 및 생활비(54.5%)로 수급자 61.5%, 비수급자 44.4%로 비율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우선 지원사항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는 손자녀를 위한 교육비 15.9%로 나타났지만, 수급자는 조부모 의료비(15.4%)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비수급자는 손자녀의 교육(27.8%)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손가정 모두 양육 및 생활비에 대한 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수급자 조손가정은 조부모의 의료비, 일반 조손가정은 손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손자녀 양육지원 우선 사항

손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 지원(68.2%)을 가장 필요로 했으며, 다음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급자 조손가정은 손자녀의 심리 정서적 지원(15.4%), 비수급자는 학습지원(16.7%)으로 나타났다.

● 손자녀 경제적 지원 우선 사항

손자녀의 경제적 지원으로 교육 및 학원비(61.4%)의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양육비(2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용돈이나 과외활동비에 대한 욕구는 순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손자녀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아 손자녀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

● 손자녀 정서적 지원 사항

손자녀를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급자(46.2%), 비수급자(55.6%) 조손가정 모두 방과 후 학습지도(50.0%)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방과 후에 손자녀를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조부모의 심리와 교육열에 대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후원 및 결연(25.0%)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친척 및 이웃의 관심(2.3%)에 대한 욕구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단순한 연계보다 경제적 지원이 동반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손자녀 학습 지원 사항

조손가정 손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방법으로 학원등록(47.7%)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개별학습 지원(29.5%), 방과 후 학교(18.2%)로 나타났다.

● 손자녀 교육비 지원사항

조손가정의 손자녀 교육비 항목으로 학원비(45.5%)에 대한 지원 욕구가 높아 학습지원 방법으로 학원등록을 선호하고 있다. 교재 및 문구구입비(43.2%)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 같은 욕구 사항으로 비수급자에게도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표 11〉 조손가정의 구체적 지원 요구사항 우선순위

조 사 내 용	수 급 자	비 수 급 자
조손가정 일반적 요구사항	1 순 위	양육 및 생활비
	2 순 위	조부모 의료비 손자녀 교육비
손자녀 양육관련 요구사항	1 순 위	경제적 지원
	2 순 위	심리 정서적 지원 학습지원
경제적 요구사항	1 순 위	교육 및 학원비
	2 순 위	양 육 비
학습지원 요구사항	1 순 위	학 원 등 록
	2 순 위	개별학습 지원

IV 정책제언

● 지역사회 연계 체계 마련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인프라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손가정을 사례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조손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조손가정 발굴, 사례관리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교육, 심리적 지원이 중심이 되고,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지지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 손자녀 양육비 지원

조손가정은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유연성을 적용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에게 양육비 지원이 요구되며, 양육비의 상향지원이 요구된다.

● 방과 후 학습지원체계

방과 후 아동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수행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학교의 운영을 내실화 및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지원 후원 및 연계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조부모 지원체계 구축

조손가정의 조부모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손자녀 양육의 심리적 부담 및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건강문제로 외출할 수 없는 조부모를 위해 방문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방문간호서비스, 정보제공 방문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충남지역

여성자원활동가 활성화 방안



연구자 : 본원 교육실 이은하 연구원

1. 연구의 배경

여성자원활동가는 우리나라 자원활동의 역사 속에서 주요한 활동으로 자리잡아 왔다. 자원활동에 관한 그간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많고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중년기 주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자원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여성자원활동가들은 주로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는 일이나 행정 보조 등의 단순하고 보조적인 일을 하고 있다. 성별분업화 현상이 자원 활동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백종혜, 1995; 노옥재, 1997; 민경자, 2000; 오명복, 2002). 이렇듯 40대 여성자원활동가들이 비전문적이고 보조적인 영역이나 '돌봄' 활동에 편중된 일을 하다 보니, 자원활동을 통해 기획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것

은 매우 어렵다. 이는 전문성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40대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자원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과 대조되는 현상으로, 여성자원활동가들의 활동 지속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대구시종합자원봉사센터, 1999; 오명복, 2002).

여성자원활동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여성의 자원활동이 유휴인력으로 인식되고 활동의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집단이면서도 자원활동의 운영 주체가 되지 못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인력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성자원활동가들이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주체로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 돼버렸다. 각종 행사에 여성들이 동원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여성들의 자발성을 떨어뜨려 여성의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동반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참여가 퇴색하고 오히려 '남자가 운영하는 사회에 여자가 보조하는'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식적인 혹은 관행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인력의 '무상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자원활동 영역에서 여성자원활동가가 진정한 의미의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원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질적 활성화가 이뤄져야 하는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충남지역의 여성자원활동의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한 충남여성자원활동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10년 이상 활동한 여성 자원활동가 6명과의 심층하였다.



2. 충남여성자원활동의 실태 및 문제점

1) 충남여성자원활동의 실태

● 충남여성자원활동가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

충남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본 조사의 표본이 된 여성자원활동가의 연령분포는 다음 <표 2-1>과 같다. 20대가 4.5%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60대 이상도 11.6%로 적은 편이었다. 반면 40대는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50대도 31.3%로 자원활동이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30대 역시 13.4%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으나 2000년 조사 때 27.8%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충남여성자원활동

이 40대-50대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은 2000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조사결과는 기존의 조사연구(김혜경, 1998; 김성경, 1999; 오명복, 2002 등)와도 비슷했다.

학력

학력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이 6.3%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졸이 15.2%, 고졸이 36.6%였다(<표 2-2> 참조). 대학교 졸업 이상이 3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2000년 조사 때 24.9%였던 것에 비하면 학력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자원활동가들의 고학력 경향은 향후 자원활동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적이지만 않다.

● 자원활동 관련 의식 및 경험

자원활동의 참여지속기간에 대해 자원활동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한번 기관과 인연을 맺으면 오랫동안 활동한다고 답했다. 5년을 활동했으나 최근 3개월 쉬었다거나 12년을 활동했으나 중간에 2년 공백기간이 있었다는 등 답변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수치로 계량하기 어려웠으나 대체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이상 꾸준히 자원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백기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직장을 갖게 되어서', '연령이 높아 후배에게 물려주었다', '건강, 임신, 노부모 부양' 등 개인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여성들이 자원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역시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분담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원활동 지속기간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활동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 정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돌봄노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면 자원활동에 대한 참여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직장을 갖게 되어서 자원활동을 그만뒀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앞으로 사회에서는 여성이 직장을 갖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자원활동 프로그램과 수요처를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여성과 남성 중 누가 자원활동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성(22.3%)이라고 답변한 사람들보다 여성(41.1%)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다. 남성이라고 답변한 이유는 '근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 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남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표 2-1> 연령

구 분	빈 도	퍼센트(%)
20대	5	4.5
30대	15	13.4
40대	42	37.5
50대	35	31.3
60대 이상	13	11.6
모름/무응답	2	1.8
합계	112	100.0

<표 2-2> 학력

구 분	빈 도	퍼센트(%)
초등학교졸업	7	6.3
중학교졸업	17	15.2
고등학교졸업	41	36.6
대학교졸업 이상	44	39.3
모름/무응답	3	2.7
합계	112	100.0

‘원래 인력이 부족하다’ 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여성이 자원활동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여성이 섬세하고 남을 더 잘 배려를 하기 때문’ 이라는 이유를 많이 들었으나 ‘남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시간이 있는 여자가 하면 좋다’ 거나 ‘남자는 생계유지 때문에 봉사활동이 곤란하다’, ‘남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 ‘남성은 직장에 가야 되니까’ 등의 성별분업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답변들이 많았다(〈표 2-3〉 참조).

남녀 모두 자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한 여성들은 31.3%로 ‘시간적 여유가 되거나 능력이 주어지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를 한다면 남녀 성구별은 상관없다’, ‘성별의 차이가 없다’ 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여성과 남성 중 누가 더 자원활동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는 여성이라는 답변이 55.4%로 가장 많았는데 ‘여성은 섬세함, 치밀함, 세밀함, 꼼꼼함이 있어 일 처리를 더 잘 한다’ 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여자들이니까 더 해야 될 것 같다’, ‘남성은 쑥스러워한다. 시간이 있는 여성이 하는 것이 좋다’ 거나 ‘청소, 빨래는 여자들이 더 잘하기 때문’ 이라는 여전히 성별분업화를 내세운 의견이 많았다. 남성이라는 답변은 3.6%에 불과했다. 남녀 모두 자원활동을 잘 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마음먹기 달렸다’, ‘성별의 차이가 없다’ 는 이유를 들었다.

〈표2-3〉 자원활동의 성별적합성

질 문	남 성	여 성	둘 다	모름/무응답	합 계
자원활동에 여성과 남성 중 누가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5 (22.3)	46 (41.1)	35 (31.3)	6 (5.4)	112 (100)
자원활동은 여성과 남성 중 누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3.6)	62 (55.4)	30 (26.8)	16 (14.3)	112 (100)
자원활동이 여성과 남성 중 누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 (3.6)	42 (37.5)	50 (44.6)	16 (14.3)	112 (100)

‘자원활동이 여성과 남성 중 누구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마찬가지로 ‘여성’ 과 ‘둘다’ 라는 답변이 많았다. 여성이라는 답변은 37.5%였으며 그 이유는 ‘강의, 단체 모임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사회참여 기회를 높일 수 있으므로’, ‘보람 있고 자신의 활력도 성장’ 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남성은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여성은 집안에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거나 ‘남자는 개인적으로 활동은 적는데 비해 공적인 일이 많지만 여성은 그와 반대이므로 여성에게 더 필요하다’ 는 답변이 있었다.

이상의 의견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자원활동이 여성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녀 이분법적인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남성은 자원활동을 잘 못하고 여건도 안 된다’ 는 성별분업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항목에 있어서도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원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사고가 드러났는데 자원활동은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고, 많은 연구들(울리히 벡, 1999; 임명옥, 2005 등)이 지적했듯이 21세기는 자원활동 제3섹터가 지역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것이 문화이자 풍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요처를 개발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간접수당 여부

자원활동 중 간접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원활동가의 8.9%만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91.1%의 다수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간접수당은 식비와 교통비 등의 기본 경비를 말하는데 대다수의 자원활동 여성들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가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고).

〈표 2-4〉 간접수당여부

구 분	빈 도	퍼센트(%)
예	10	8.9
아니오	102	91.1
합계	112	100

간접수당 지급여부별 만족도

한편 간접수당 지급여부가 자원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통계량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다수 여성들은 자원활동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접수당 지급여부별로 비교하여 보면 간접수당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자원활동에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가 간접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성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위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간접수당 지급여부가 자원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표 2-5〉 간접수당 지급여부별 만족도

구 분	예	아니오	전 체
만족	7(70.0)	91(89.2)	98(87.5)
불만족	3(30.0)	11(10.8)	14(12.5)
합계	10(100)	102(100)	112(100)

● **자원활동실태**

위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및 관련인식과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는 자원활동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자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자원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87.5%의 다수 여성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표 2-8〉 참조). 그 이유는 '보람된 일을 하기 때문에'가 69.4%로 가장 많았으며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가 16.3%, '사회참여를 한다는 점에서'가 7.1%로 나타났다. 만족하나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응답도 17.9%나 됐다. 한편 자원활동에 불만족을 표시한 응답은 12.5%였는데 모름 및 무응답의 답변이 많아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표2-3〉 자원활동의 성별적합성

구 분	이 유	빈 도	퍼센트(%)
만 족 98 (87.5%)	• 보람된일을 하기 때문에	68	69.4
	•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17	16.3
	• 사회참여를 한다는 점에서	7	7.1
	• 모름/무응답	20	17.9
	합계	112	100
불만족 14 (12.5%)	• 내가 하는일에 대해 하찮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1	7.1
	• 관리자 혹은 다른 자원활동가와 갈등이 있어서	1	7.1
	• 모름/무응답	110	85.7
	합계	112	100.0

참 여 동 기

먼저 자원활동을 하게 된 동기를 조사했다. 가장 많이 나온 항목은 '이웃에 봉사하려고'로 57.1%였다(〈표 2-7〉 참조). 그 밖에 '사회경험을 통한 자기 발전을 위해'가 16.1%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가 15.2%였다. 대체로 '이웃에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기발전'과 '지역사회 이바지' 같은 폭넓은 목표의식을 가진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두 항목을 합해 31.3%에 이르는 것은 자원활동이 '봉사'에 그치지 않고 자기 발전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기타라고 대답한 응답도 11.6%나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달라는 질문에 '여가선용을 위해', '집에서 해방되기 위해', '취업을 위해서 했다' 등의 대답이 나왔다. '취업을 위해서'라는 답이 소수 있었는데 이는 여성들이 추구하는 '자기발전'이 아직 취업으로 외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2-7〉 자원활동동기

구 분	빈 도	퍼센트(%)
이웃에 봉사하려고	64	57.1
사회경험을 통한 자기 발전을 위해	18	16.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17	15.2
기타	13	11.6
합계	112	100

자원활동에 대한 만족도

다음은 자원활동 만족도가 자원활동 동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통계량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8〉와 같다. 대체로 자원활동에 대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원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80%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발전과 여가선용을 위해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자원활동에 불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16.7%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들도 자원활동에 불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23.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원활동이 자기발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주는 만족도는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나 그 자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원활동 동기가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Lammers가 위기정보서비스센터에서 147명의 상담자원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보다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이기적 동기가 자원활동 만족도와 지속기간에 더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기변수는 활동의 지속에 영향력이 있으며 활동만족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성경, 1999; 14쪽 재인용).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Lammers의 연구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왔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자원활동 동기별 만족도의 연관성에 대한 좀더 면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Cnaan과 GoldbergGlen(1991)는 자원활동자 중에 '습관적인 자원활동자'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활동의 경험 자체가 보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동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을 지적했다(김성경, 1999; 36쪽 재인용). Cnaan과 GoldbergGlen(1991)가 지적한 것처럼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습관적인 자원활동가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표 2-8〉 자원활동 동기별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이웃에 봉사하려고	사회경험을 통한 자기발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전 체
만 족	60(93.8)	15(83.3)	13(76.5)	88(88.9)
불 만 족	4(6.3)	3(16.7)	4(23.5)	11(11.1)
합 계	64(100)	18(100)	17(100)	99(100)

자원활동 시작

다음은 자원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조사했다(〈표 2-9〉 참조). 가장 많은 응답은 자원활동기관이나 시군에서 부탁전화를 받고 활동에 나서는 경우로 58%였다. 스스로 시간을 계획해서 하는 경우도 38.4%나 됐으며 연락을 받기도 하고 계획을 짜기도 하는 등 둘 다인 경우는 3.6%였다.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원활동이 아쉬운 대목이다.

〈표 2-8〉 자원활동 동기별 만족도

구 분	빈 도	퍼센트(%)
• 스스로 시간을 계획해서 한다	43	38.4
• 자원활동기관이나 시군에서 연락이 오면 한다	65	58.0
• 스스로 하기도 하고 연락을 받아서 하기도 한다	4	3.6
합 계	112	100.0

자원활동 시작별 만족도

다음 자원활동 만족도가 자원활동을 시작하는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0〉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자원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원활동 시작 유형별로 비교하여 보면, 스스로 시간을 계획해서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 만족도가 90.7%에 이르렀으며 기관이나 시군에서 연락이 오면 비로소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는 만족도가 86.2%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원활동을 시작하는 유형이 자원활동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표 2-10〉 자원활동 시작별 만족도(유)

단위: 명(%)

구 분	스스로 시간을 계획해서 한다	자원활동기관이나 시군에서 연락이 오면 자원활동을 한다	연락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스스로 하기도 한다	전 체
만 족	39 (90.7)	56 (86.2)	3 (75.0)	98 (87.5)
불 만 족	4 (9.3)	9 (13.8)	1 (25.0)	14 (12.5)
합 계	43 (100)	65 (100)	4 (100)	112 (100)

$\chi^2=1.081$, $df=2$, $p=.582$

자원활동 구성

다음은 자원활동 구성에 대해 조사했다(〈표 2-11〉 참조). 자원활동 단체나 시군에서 기획된 내용대로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73.2%로 가장 많았으며 일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모두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경우는 22.3%였다. 많은 여성들이 자원활동을 단체나 기관이 준비하고 기획한 대로 수행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1〉 자원활동 구성

구 분	빈 도	퍼센트(%)
• 자원활동단체나 시군에서 기획된 내용대로 수행한다	82	73.2
• 일하는 방식, 내용을 모두 내가 알아서한다	25	22.3
• 모름/무응답	5	4.5
합 계	112	100.0

자원활동 구성별 만족도

다음 자원활동만족도가 자원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통계량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2〉과 같다. 단체나 시군에서 기획한 대로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만족도는 82.9%로 높게 나타났지만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17.1%에 달했다. 반면 일하는 방식과 내용을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경우는 만족도가 무려 100%에 달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주체적으로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자원활동 만족도는 자원활동을 진행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따라서 자원활동의 내용 구성 방식에 있어서 여성 자원활동가들이 주체적으로 내용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자원활동의 내용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여성자원활동가들이 자원 활동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자원활동에 대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원활동에 동원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자원활동을 그만두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표 2-12〉 자원활동 구성별 만족도(유의미)

단위: 명(%)

구 분	자원활동단체나 시군에서 기획된 내용대로 수행한다	일하는 방식, 내용을 모두 내가 알아서 한다	전 체
만 족	68 (82.9)	25 (100)	93 (86.9)
불 만 족	14 (17.1)	-	14 (13.1)
합 계	82 (100)	25 (100)	107 (100)

$\chi^2=4.911$, $df=1$, $p=.027$

자원활동 분야

다음은 여성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사하였다(〈표 2-17〉 참조). 여성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대(對)민복지 분야가 76.8%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 교육, 교통, 행정 등 공공복지 분야는 15.2%였다. 다음은 문화 및 여가생활 영역으로 4.5%를 차지했다. 여성들의 자원활동은 역시 대(對)민복지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고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특정분야, 즉 여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돌봄노동 영역에 치우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련 분야와 수요처를 개발할 것이다.

〈표 2-13〉 자원활동분야

구 분	빈 도	퍼센트(%)
• 대민복지	86	76.8
• 공공복지	17	15.2
• 문화 및 여가생활	5	4.5
• 대민복지+공공복지	4	3.6
합 계	112	100.0

자원활동 분야

다음은 여성들이 자원활동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조사해 보았다(〈표 2-14〉 참조). 자원활동내용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노력봉사, 학습 및 문화봉사, 전문기능봉사, 상담의료봉사, 사회공익봉사, 행정업무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은 '노력봉사'로 58.9%를 차지했다. 다음은 학습 및 문화봉사로 11.6%로 나타났으며 사회공익봉사가 8.9%였다. 나머지 기능들은 5 - 7%대에 머물렀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노력봉사 등의 단순업무만을 해왔음을 나타낸다. 자원활동 업무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2-14〉 자원활동내용

구 분	빈 도	퍼센트(%)
• 노력봉사	66	58.9
• 학습 및 문화봉사	13	11.6

구 분	빈 도	퍼센트(%)
• 전문·기능봉사	6	5.4
• 상담·의료봉사	8	7.1
• 사회공익봉사	10	8.9
• 행정업무지원	6	5.4
• 기타	3	2.7
합 계	112	100

자원활동 적합성

다음은 자원활동의 적합성에 대해 알아보았다(〈표 2-15〉 참조). 본인이 수행하는 자원활동에 대해 절대 다수의 여성들이 잘 맞는 일이며 할 만하다고 답변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일이라는 답변이 83.9%로 가장 많았으며 잘 맞지 않지만 익숙해져서 할 만하다는 답변은 9.8%였다. 하고 싶지 않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자원활동 영역과 내용을 분석한 위 내용을 통해 볼 때 여성자원활동가들은 대부분 돌봄노동 영역에서 노력 봉사하는 일과 같은 단순한 일을 하고 있고, 자원활동 내용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시나 군에서 연락이 오면 자원활동에 나가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83.9%의 여성들이 지금 하는 자원활동 하는 일이 잘 맞고 할 만하다고 대답한 대목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스스로 수동적 정체성에 길들여져 있다는 이야기 인데 이는 여성 스스로 주체성에 대한 의식이 결여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힘(power)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단체의 리더가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 여성주의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성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역량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인되는 것이다.

〈표 2-15〉 자원활동의 적합성

구 분	빈 도	퍼센트(%)
• 나한테 잘 맞는 일이다	94	83.9
• 잘 맞지 않지만 익숙해져서 할 만하다	11	9.8
• 하고 싶지 않지만 이왕 시작한 것이어서 계속하고 있다	4	3.6
• 모름/무응답	3	2.7
합 계	112	100.0

자원활동 지속계획

다음은 자원활동의 지속계획에 대해 조사했다(〈표 2-16〉 참조).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85.8%가 앞으로 자원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응답이 18.8%였으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67%를 차지했다. 반면에 조금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12.5%였다. 대체로 여성들의 자원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자부심이 큰 결과 자원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비주체적인 방식으로 자원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원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자원활동가들의 주체 형성 과정에 대한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2-16〉 자원활동 지속계획

구 분	빈 도	퍼센트(%)
• 조금 더 하고 그만두겠다	14	12.5
•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하고 싶다	75	67.0
•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하겠다	21	18.8
• 모름/무응답	2	1.8
합 계	112	98.2

자원활동 지속계획별 만족도

여성들의 자원활동 지속의사에 따라 자원활동 만족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통계량을 이용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7〉과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다수 여성들이 자원활동을 지속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중단할 것이라고 답한 여성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원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답한 여성들의 만족도는 100%에 달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하겠다고 답한 여성들의 만족도는 역시 89.3%에 이르렀다. 반면에 '자원활동을 조금 더하고 그만두겠다'고 답한 여성들의 자원활동 만족도는 64.3%에 불과했다. 불만족도 역시 35.7%로 다른 의견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자원활동 지속의사와 자원활동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표 2-17〉 자원활동 지속계획별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조금 더 하고 그만두겠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하고 싶다	무슨일이 있어도 계속하겠다	전 체
만 족	9 (64.3)	67 (89.3)	21 (100)	97 (88.2)
불 만 족	5 (35.7)	8 (10.7)	-	13 (11.8)
합 계	14 (100)	75 (100)	21 (100)	110 (100)

$\chi^2=10.581, df=2, p=.005$

자원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다음 자원활동을 통해 여성들이 경험 지식 등을 쌓고 지도력을 높이며 사회참여 의식이 발전했는지 조사했다(〈표 2-18〉 참조). 우선 새로운 경험, 지식, 기능의 습득을 통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63.4%의 여성들이 그렇다고 답했으나 36.6%는 아니라고 응답했다. 자원활동의 내용이 일상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그친 결과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한 여성들이 많았다.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생겼는가 라는 물음에는 82.1%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17%는 아니라고 말했다. 자원활동이 능력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나 사회생활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는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귀하의 지도력이 배양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는가라는 질문에는 59.8%가 그렇다고 말했으나 39.3%는 아니라고 답했다. 지도력은 해당 업무를 숙지한 자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 나갈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자원활동 내용의 구성 방식이 상당히 수동적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도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지도력이 배양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고 답한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무엇을 지도력이라고 보는지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고 답한 근거가 무엇인지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연결될 전망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63.4%가 아니라고 답했으며 35.7%의 여성들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원활동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배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활동이 특정 분야로 몰려 있고 단순 노력봉사하는 일에만 국한돼 있는 현실의 반영인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발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까라는 질문에는 81.3%의 여성들이 그렇다고 답했으나 18.8%는 아니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원활동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공동체 의식의 발전에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봤을 때 자원활동은 여성들의 경험, 공동체 의식,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등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는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도력, 기능 습득, 고용 등 실질적인 업무 영역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자원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질문	그렇다	아니다	모름/무응답	합계
새로운 경험, 지식, 기능 습득을 통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	71 (63.4)	41 (36.6)	-	112 (100)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가 생기셨습니까?	92 (82.1)	19 (17.0)	1 (0.9)	111 (99.1)
귀하의 지도력이 배양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습니까?	67 (59.8)	44 (39.3)	1 (0.9)	111 (99.1)
고용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연결될 전망이 보입니까?	40 (35.7)	71 (63.4)	1 (0.9)	111 (99.1)
공동체 의식의 발전,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까?	91 (81.3)	21 (18.8)	-	112 (100)

이상으로 123명의 충남여성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활동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그들의 자원활동 관련 의식 및 경험을 조사하였다. 또한 활동실태와 자원활동의 효과를 살펴본다. 이런 조사결과와 오랫동안 자원활동가로 활동했던 활동가를 바탕으로 다음에는 충남여성자원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3. 정책제언

이상의 충남지역의 여성자원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극복하고 여성자원활동의 질적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우선 자원활동가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자원활동이 질적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성자원활동가의 전문성이 향상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①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복지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하고 방송통신대 등 학교 진학을 권유하여 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여성폭력 방지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
- ② 자원활동가들에게 의정활동 모니터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이수하도록 하고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여성자원활동가들이 생활정치적 장(場)인 지방의회에 진출해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

- ③ 정비기술 등 남성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영역 그리고 취업과 연관될 수 있는 전문기술 영역을 여성자원활동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가전제품 등을 무료로 수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직업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한다.
- ④ 단순하고 보조적인 역할만 줄 것이 아니라 직접 기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기획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이 독자적으로 창업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 ⑤ 자원활동가들끼리 경제세력화를 위해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활동가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⑥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자원활동에 따른 인증서 발급을 통해 취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여성자원활동이 질적인 측면에서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평적 리더십, 여성주의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일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 ① 여성단체 활동가들에게 여성주의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여성단체 활동가이면서도 자신에 대한 주체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여성들이 충남지역에 많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도록 의식화 교육을 하고 리더로서 전문성을 갖도록 관련 지식 교육을 병행할 뿐 아니라 여성주의 네트워킹이 자매애를 바탕으로 한 동료의 성장을 중요시하는 만큼 조직적 역량 강화 증진을 위한 수평적 리더십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도 차원에서 질적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센티브의 예는 교육을 열심히 하는 기관에 예산 지원을 하거나, 자매결연 맺은 국가의 지자체의 자원활동기관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평가의 틀이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 ② 이렇게 훈련받아 지도자가 된 선배들이 자원활동으로 다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자원활동가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선후배를 네트워크로 묶어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멘토링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여성자원활동가와 남성자원활동가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돌봄활동 자원활동가 교육에 여성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같이 모집해 남성도 돌봄활동으로 전문자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별분업화된 자원활동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 ③ 자원활동협의체가 남성자원활동가들의 생각만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자원활동가들을 묶는 협의체도 필요하겠다. 이 협의체는 여성주의 정치학이 작동해야 하는 조직이다.

셋째, 여성자원활동의 질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활동가와 자원활동센터 수요처 등 관련 기관의 연계성이 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자원봉사활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는 시군별로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다. 현재 충청남도의 경우 각 부처별로 지원받는 시군별 종합자원봉사활동센터들이 있다. 그리고 2005년에 통과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그해 충청남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07년에 개원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충남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자원활동가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나 자원활동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여성자원활동가가 또 이 과정에서 배제 받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원활동을 건강가족지원, 보육, 여성인력 개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성자원활동이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밑그림대로 각 시군별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자원봉사활동센터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의 신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기본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센터 선별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 현장탐방

나누는 삶의 각별한 의미

한병래 (홍성 주부모니터)

아침부터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마음가득 행복한 날이 있었다.

목욕탕에 놓여진 샴푸와 린스 등 머리를 감기고 손톱을 깎은 손톱깎기와 커다란 비닐봉지를 가방에 챙기며 기분이 좋아진 것이다.

얼마 전 이는 친지의 병문안을 위해 병원의 입원실을 찾아갔었다. 친지를 뵙고 빠른 쾌유를 빈다는 위로의 말과 새싹이 피듯한 화분을 전달하고 나오려는데, 병실 한쪽 귀퉁이에 자리한 입원환자의 침상 사방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한 곳이 있었다.

나는 환자가 휴식을 취하던지 아님 옷을 갈아입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무심히 지나쳐 나오려 하는데 울음 섞인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 들리는 것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다시 되돌아 들어가 “저분은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가요” 하고 친지에게 물으니 “그 환자 한달 보름쯤 전에 온 몸에 화상을 입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피고름이 줄줄 나오고 있다” 고 하였다. 흉한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 질까봐 저렇게 커튼을 쳐놓고 있다는 말은 조그맣게 해주었다. 그리고는 너무 고통스러워 밤낮없이 우는 소리를 내며 괴로워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 환자의 가정사정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연인즉 환자인 아주머니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중학생인 딸 하나를 두고 힘겹게 지내다가 얼마 전 현재의 남편과 새로이 만나 살게 되었다. 지금의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일하는 노동자였다. 그러한 남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하면서 술만 퍼마시고 술주정만 심하게 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돈을 벌려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커다란 물 주전자에 물 끓인 것을 들어 내리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일어 펄펄 끓는 주전자의 물을 자신의 온몸에 쏟고 말았다.

병실에 같이 입원한 분들은 그 환자 언제 피고름이 멎고 새살이 돋아 퇴원하게 될는지 걱정이라고들 했다. 그런데 남편은 술만 마시면 문병을 와서는 병실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빨리 퇴원해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무조건 짐을 싸서 가자고 하며 술주정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같은 병실에 함께 있는 입원환자 모두에게 공포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은 계부와 같이 살면서부터 가정이 평안치 못하여 집을 나간 상태로 어디에 있는지 소식조차 모르고 지낸다고 했다.

난 살그머니 커튼을 젖혀 얼굴을 들이밀고 환자를 보았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쑥세미처럼 헝크리진 머리에 눈물범벅이 된 얼굴만 빼고 온몸에 붕대를 감았는데 그 위로 검붉은 핏물이 배어있고 몸을 웅크린 자세에 이불이랑 요도 모두 피로 얼룩져 있었다.

난 참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화장실로 뛰어가 울컥울컥 목에서 이물질을 뱉어 낼 수밖에 없었다. 찬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한참을 진정힌 후에 의자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가끔씩 입원실에 문병을 오긴 했지만 이런 환자는 처음이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난 뒤 저 아주머니 병간호는 누가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숨을 쉬면서 하시는 친지의 말은 "해주긴 누가 해주겠어 오죽해야지. 가족이 돌봐야 하는데 누가 있어야 말이지" 하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날 밤 밤새도록 그 아주머니의 엉겨붙은 머리카락과 붕대에 감긴 몸에 통증으로 오그라진 모습이 눈에 어른거려왔다. 그러면서 아주머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어 샴푸와 린스, 손톱깎기, 비닐봉투 등을 가방에 챙긴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 아주머니에게 머리를 감겨드리고 필요한 것을 해드리기로 한 것이다. 아침밥을 일찍 먹고 아주머니가 계시는 입원실에 도착해서 커튼을 열고 조심스럽게 아주머니를 불렀다.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는지 아주머니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제가 아주머니 머리를 감겨드리면 어떨까요" 말씀드리니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한참동안 쳐다보더니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머리를 감지 못 한 것이 한달도 넘었네요" 하셨다. 나는 물이 닿으면 화상환자에게 감염증상이 일어나게 될까 염려해 온몸을 비닐로 감싸고 머리만을 내놓은 채 병실 안 목욕탕으로 부축하여 갔다. 한 달 이상 머리를 감지 못해 특유의 냄새를 풍기며 서로서로 엉겨붙고 찢득찢득

한 머리에 샴푸를 몇 번씩 칠하고 물로 헹구어 주었다.

아주머니는 두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였다. 나도 나의 머리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오래된 묵은 때를 말끔히 벗어버리고 새 머리를 가진 것 같은 활기분한 기분이 들었다. 나와 아주머니는 서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었다.

그 후 자주 찾아가 아주머니의 머리를 감겨 예쁘게 빗어드리고 수건으로 손발을 깨끗이 닦아드리면서, 한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 먹고 싶은지를 물어서 헤드리고 말벗도 헤드렸는데, 아주머니는 도움 받는 것을 고맙고 한편으로 미안해 하였다. 어느 날은 자신의 힘들게 살아온 날들을 나에게 말하기도 하면서 눈물을 찍어내기도 하고, 딸이 공부도 잘하고 예뻐는데 자신이 못나서 가출을 했다면서 슬피 울기도 하였다. 난 조용히 클라이언트를 대하듯 그러한 말들을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였다. 몇 달이 지나자 고통과 외로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내면서 아주머니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밝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 어느 날 집을 나갔던 딸이 병실로 자기 엄마를 찾아왔을 때 애태우던 내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반가웠다. 힘들게 찾아오긴 했지만 재혼한 엄마를 원망하고 침대 한쪽 귀퉁이에 앉아 엄마를 노려만 보는 아이의 갈등과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며칠을 고심하였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아이에게 상담을 해주지는 생각으로 상담을 시작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만나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내 아이를 대하듯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기 시작한지 26일째 아이가 눈물과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였다. 어떠한 경우라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학교공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후로는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간호하기 시작하였다. 아주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퇴원하던 날, 난 나누는 삶의 각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가에 노란 민들레꽃이 나를 반겨 방긋 웃어주었다.



충남지역 현장방문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을 찾아서...



한은애 (천안 주부모니터)

내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431번지 (TEL: 041-521-1114)에 위치한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르신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병원이 있다.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은 천안시 노인의료복지정책에 의하여 건립된 병원으로써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에서 운영을 위탁받아 2005년 11월 22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노인질환전문치료요양병원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내부에는 총 23개 병실과 재활치료실, 목욕실, 외래진료실, 약국 등을 비롯해 가족들의 방문을 위한 가족식당

까지 갖추고 있으며, 층층이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과 분위기로 병원 특유의 쓸쓸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최신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전문 의료진이 구성되어 한 눈에 보아도 환자 중심의 병원임을 느낄 수 있다.

병원이 위치한 주변 경관까지 최적의 자연환경이라 공해와 소음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 마음의 병까지 치유할 수 있으며 24시간 간병인을 포함해 물리치료가 5명, 임상병리사 1명, 작업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등이 총동원되어 환자들의 아들, 딸이 되어주고 있다. 주로 치매 환자가 많으므로 신경학적 진찰과 환자의 기억력, 판단력, 계산능력, 시간공간 지각능력, 언어능력 및 감정변화 등을 평가하기 위한 인지기능검사 뇌파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내과적 검사를 통해 치매의 원인을 확인하고 혈관성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증상 호전을 위한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 지금 한창 공사중인 요양원도 아마 올해 말쯤이면 완공이 되어 더욱 편리하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진료과목으로는 노인의학과, 신경과, 내과, 한방과, 재활의학과 등이 있어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면 치유될 때까지 모든 치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6인 병실에 간병인이 1명씩 의무 배치되어 24시간 내내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으며, 주로 입원 환자들로 병실이 꽉 차기 때문에 외래 환자들은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으나 현재 많은 외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기도 하다. 주로 환자들의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로, 자녀들의 거주지를 따라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차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

병원 입원비는 일반 병원의 1/2 수준인 120만원~ 130만원 정도이며 그나마 입원비는 24시간 간병인 비와 식대를 포함한 금액이어서 매우 저렴한 편이다. 가족식당이 있을 정도로 입원 환자 대부분이 가족들의 방문이 많은데다, 병원 측에서도 소규모의 재활치료 프로그램들을 매 주 활발히 진행하므로 병의 호전도는 그만큼 더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의 활발한 자원봉사자들도 큰 도움이 되어 간병인들과 목욕을 하기 힘든 분들에 한해서는 15-16명 정도로 구성된 목욕팀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굳이 옥의 티를 말하자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많은 탓에 병실마다 입구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편리하기는 하나, 각 병실마다 목욕실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병실 천장에 환풍 장치가 되어 있질 않아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침대에서 용변을 볼 경우 창문을 열지 않으면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 문제점 또한 지적하고 싶다.

‘한 평생을 희생만 강요당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늙고 병들어 있었다’는 한 환자의 말처럼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오로지 자식을 위한 헌신이 결국 움직이지도 못할 중병을 만든 것이다. 각박한 현대를 살다보니 마음처럼 부모를 찾아보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그나마 공기 좋고 물 맑은 자연에 위치한 병원에 계실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을 수도 있으리라. 아직은 시골이라 교통 여건이 좋



질 낮은 이유로 대중교통이 없어서 노인들의 일상 진료를 받기에는 힘든 점이 많지만 병실은 빈곳이 하나 없이 꽉 차있다.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어 진료를 하고 있으며 주로 노인병원에 입원을 하는 환자들은 적응을 잘하는 편이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보완점을 지적하자면 사회복지사가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일의 분담으로 인한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으며, 간병인 또한 6인 병실에 한 사람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이 아니기에 간병인 또한 증원을 해야 피로에서 오는 격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간보호센터는 일반적으로 치매가 심하게 걸려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선입관 때문에

100% 치매환자인데, 이들은 식대 80,0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무료이므로 아직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용을 권하고 싶다. 주로 꼭 찬 병실엔 여성 환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현재 남자 병실로는 3층에 2개와 5층에 4개, 총 23개 병실 중 6개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건립 중인 요양원은 기초생활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로 할 예정이다. 노인전문병원의 박수찬 사회복지사는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도 자주 보지 않으면 멀어지기 마련인 것 같다. 그저 자주 왕래하는 것이 최선의 효도”라고 이야기한다. 또 덧붙여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학 공부를 해서 참된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피력함으로 사랑을 목말라하는 노인 환자 분들을 걱정하기도 했다.

점점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버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는 노인을 위한 복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세상에 늙고 싶은 사람이 어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불로초가 정말 있다면 누구라도 전 재산을 털어 사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만큼 늙는다는 건 서러운 일. 이왕이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늙어서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다면 그 곳이 불로초가 아니겠는가?



News

도·여성계·본원 소식



◆ 농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

보령시 1명당 500만원 / 연기군 1명당 300만원

보령시와 연기군이 결혼상대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촌총각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보령시는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에게 결혼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의 미혼자이며, 지원액은 1명당 500만원 이내이다.

연기군도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미혼자로, 지원액은 1명당 300만원이다.

◆ 여성위원 연찬회

도내 여성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충남 여성의원 의정발전연구회(회장 홍표근·도의원)는 3월 27일 아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연수회를 개최, 초청 연사의 강연을 듣고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 “출산하고 100만원 받아요”

천안, 여성장애인 출산시 지원금 지급

올해부터 천안시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지난해 제정한 뒤 9천만원의 사업비까지 확보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금 지원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절차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격 여부를 심사해 개인 계좌에 입금된다.

천안에는 6천652명의 여성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20~50세는 1천 978명이다.

◆ 금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

7개국 134명 거주



금산으로 시집온 외국인 주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郡은 1월 25일 금산을 상리 군수관사에서 박동철 금산군수와 정현수 군의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국제결혼 이민여성과 가족들의 교육, 가족생활상담, 자녀들에 대한 보육 및 학습지원 등을 맡게 된다.

센터가 문을 연 것은 郡수가 자신의 관사 부지(1천33㎡)를 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내놓으면서 시작했다.

현재 금산에는 7개국 134명의 외국인 이주여성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충남여협 바자회충남여성단체협의회는 1월 30일 천안 아라리오 광장에서 장항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서명 운동 및 바자회를 열었다. <사진> 김정숙(左) 여협 회장이 한창숙 장항산업범도민비상대책협의회 공동대표에게 서명부와 바자회 수익금을 전달하는 모습.

◆ 충남여성단체협의회회장 고희순



충남여성단체협의회 제24대 회장에 고희순(57·사진)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장이 선출됐다.

◆ 여성포럼 대표 이선자



충남여성포럼은 2월 21일 정기총회를 갖고 이선자(李善子·63·도의원·사진)씨를 선임대표로 선출했다.李女士는 공주 출신으로 공주사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공주여중 교장, 공주 교육장, 충남여성포럼 공동대표를 지냈다.

◆ 여성자치대학 내달 개강

도가 운영하는 2007년도 충남여성자치대학이 4월 4일 개강한다. 지난 2001년 시작된 여성자치대학은 수강생들이 자기 지역 시·군청에서 도와 연결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강좌를 듣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10주 과정으로 4월4일부터 6월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 자원봉사센터 운영자 선정

충남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기관으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선정됐다. 도는 3월 14일 도청에서 수탁법인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7~9일 실시한 공모에는 2개 법인이 신청서를 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앞으로 도와 협약을 맺고 센터장과 직원을 공개모집할 예정이다.

◆ 第6回 「유관순賞」 수상자 金任順씨 選定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사랑을 실천하며 평생을 헌신

유관순賞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충청남도지사)는 평생을 전쟁고아를 돌보고 정신지체 장애인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임순(金任順, 81세) 경남 거제 '애광원' 원장을 제6회 「유관순賞」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김임순 원장은 일제 식민지 암울한 시대에 출생하여 어린시절을 보내며 독립투사가 되려던 꿈과 열정을 1952년부터 지금까지 54년간을 전쟁고아를 돌보고 정신지체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쏟아 평생을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사랑을 실천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유관순열사와 같은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1952년 동족상잔의 전화를 피하기 위하여 잠시 거제도로 피난을 왔다가 대학교 스승인 김원규氏의 손에 이끌려 7명의 전쟁고아를 우연하게 맡은 것을 시작으로 이들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하고 손수 드럼통 철판으로 바닥을 깔고 흙으로 벽을 쌓아 만든 천막집에서 처음 설립한 '애광영아원'을 26년간 운영하여 692명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배출하였다. 또한, 그녀 자신의 딸조차 그녀가 친엄마인 줄도 모르고 고아들 틈에서 함께 자랄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그녀의 크고도 진정한 사랑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78년 '애광영아원'을 정신지체인 보호시설인 '애광원'으로 전환한 후 이들을 위한 재활과 치료시설을 갖추기 위한 김원장의 간절한 호소로 건축가 강병근氏의 도움을 받아 18억원이 소요되는 건축설계를 마련하였으나, 그 당시 사립기



第6回 「유관순賞」 수상자 金任順씨 選定

관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며 백방으로 쫓아 다니고 노력한 결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 시설 '민들레집'을 완성하여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재활과 치료의 길을 열었다.

아울러, 1989년 수상한 막사이사이상 상금 3만달러, 우리돈으로 1,8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거제애광학교'를 짓는데 모두 내 놓는 등 정신지체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푸른 바다처럼 넓고 깊은 사랑을 실천하였다.

요즘도, 김임순 원장은 81세라는 고령과 관절염으로 아픈다리에도 불구하고 뒷산 텃밭에 나가 아이들에게 먹일 무공해 채소를 손수 가꾸며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꿈꾸고 있다.

「유관순賞위원회」는 "전쟁고아 보호를 위한 '애광영아원'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 요양, 공

동생활, 직업재활시설인 '애광원'을 설립 운영하여 헌신하고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김임순씨를 제6회 「유관순賞」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관순賞」은 유관순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그 열을 오늘에 되살려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이나 여성단체를 선발·시상하기 위해 충청남도, 동아일보, 이화여자고등학교가 2001년 7월 공동으로 제정하여, 제1회 수상자로 경남 마산 인애원장 故 조수옥(趙壽玉)씨를, 제2회 수상자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지도위원 윤정옥(尹貞玉)씨를, 제3회 수상자로 한국현대문학관 이사장 전숙희(田淑禧)씨를, 제4회 수상자로 경신사회복지연구소장 이효재(李?再)씨를, 제5회 수상자로 나자렛성가원 원장 이인복(李仁福)씨를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다.

News



◆ 「유관순햇불賞」에는 서울 이화여고 1학년 신수연 학생 등 7명 선정

한편,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시상하는 「유관순햇불賞」 수상자로는 신수연(17세, 서울 이화여고), 김윤경(17세, 전북 부안여고), 김보영(17세, 대구 계성고), 김해량(17세, 충남 복자여고), 조아라(17세, 부산 해운대관광고), 노승현(17세, 서울 월계고), 김경은(17세, 경기 수원여고) 학생 7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신수연 학생을 비롯한 7명은 각각 모범적인 학교생활과 우수한 봉사활동 등 서면 공식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2007.1.23~1.25(2박3일)일까지 유관순賞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워크숍 활동평가(유관순열사 관련 사진 느낌과 해설달기, 연극, 연구과제 발표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유관순햇불賞은 18세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동년배 여학생들에게 널리 선양 “유관순열사와 함께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2002년 10월 제정되었으며, 2003년 1명, 2004년 6명, 2005년 5명, 2006년에는 7명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다.

시상식은 오는 3월 30일(금) 오후 2시 유관순열사의 모교인 서울 이화여고내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리며, 김임순씨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신수연 학생 등 7명에게는 100만원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 충남여성단체지도자「간담회」개최

2일, 「충남여성발전」 및 「지역현안사항」 토의



충남도는 4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고희순(57세) 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과 도 및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여성단체지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과 농가주부모임, 한국걸스카우트, 한국여성농업인 등 각 단체별로 새로 선출된 여성단체협의회장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희순 회장의 주제로 여성단체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협의와 충남여성발전과 여성단체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 등 여성발전과 단체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완구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행정도시건설, 도청이전 등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충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고령화시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20·30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와 40대 이후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한다며 여성단체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 충남여성포럼 전체회의



충남여성포럼에선 지난 2월 27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갖고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포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충남여성포럼 선임대표 이선자 충남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하여 “충남여성정책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포럼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충남여성포럼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5월,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시작으로 총 4회의 포럼과 회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News

◆ 충청남도 여성계 신년교례회

'여성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다짐



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金貞淑)는 1월 5일 천안웨딩코리아에서 이완구 도지사, 도와 시·군 여성단체장, 도내 여성계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충청남도 여성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희망찬 丁亥年 새해를 맞아 도내 여성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인사와 충남여성발전을 위한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신년인사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구호제창 ▲축하 떡 가르기 ▲축하삼패인 및 축하제의, 축하 順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정숙 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여성들이 국가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완구 도지사는 신년인사를 통해 "1만불에서 2만불 시대로 가는 시기에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9%이상씩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10년간 1%만 상승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향상에 더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원소식

제 4대 김경숙 원장 취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이사장 최민호)은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난 2월부터 공식이었던 원장에 김경숙(金景淑, 51세) 공주대학교 교수를 새로운 원장으로 임명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전국 공모를 통해 지원서를 신청한 9명의 후보자들을「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 엄격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김경숙씨를 원장으로 내정하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이사회에 제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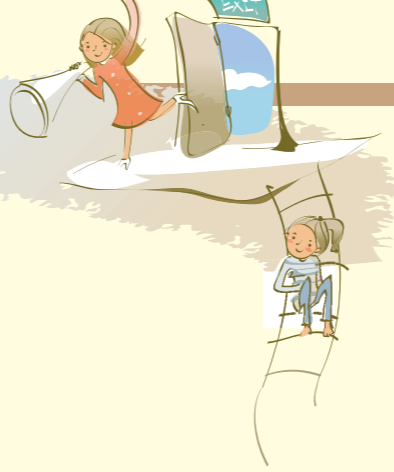
29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최민호 행정부지사)이 최종 임명하였다.

金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아 1983년부터 현재까지 공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도정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여성발전위원회, 충남여성포럼, 정책자문교수단 등 각종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나 대표를 맡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는 등 충남도와 오랫동안 각별한 인연을 맺어 왔다.

金원장은 "업무의 혁신과 조직의 변화를 통하여 여성정책개발원을 여성정책 연구기관으로써 기틀을 새롭게 다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충남 백만여성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여성정책에 대한 金원장의 탁월한 식견과 원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덕목을 고루 갖춘 점이 높게 평가되어 원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개발원이 도와 호흡을 맞추면서 충남 여성정책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취임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김 경 속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에게 제4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민호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도의원님들, 도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가족 모든 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귀빈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곳으로 오면서 비록 황사가 심하긴 합니다만, 진달래며 목련을 바라보면서 지난 1999년 6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개원식에 참석하러 오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박정자 삼거리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문득 본 계룡산 자락이 너무 아름다워서 개발원까지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저를 보고 동승을 권하는 분들께 먼저 가시라고 하고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초록빛 가득한 6월에 저는 그렇게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날 첫 걸음을 시작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김화중, 박상돈, 이재우 전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땀과 열정이 모여 행복한 가족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져 왔습니다. 지난 8년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70개의 연구사업과 98회의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58회에 걸친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충남 여성정책의 산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꾸준한 정책 개발 및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충남에는 적지 않은 정책적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입니다. 현재 충남의 노인인구는 평균 17%를 상회하고, 충남의 출산율은 전국 출산율보다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완결하려면 아직 과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우리 충남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연구소 설립을 추진했던 것, 그리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보육정보센터를 부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가족 해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 가정을 육성하는 일입니다. 충남의 연간 이혼 건수도 급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충남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21.5%입니다. 최근에도 여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명칭이 바뀐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적인 가족의 인성교육 기능을 대신 할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충남 내 단독 가구 수가 25% 이상 증가한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가족의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 모델의 붕괴와 함께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아동에 대한 인성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결혼 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모색입니다. 충남에서도 국제결혼 비율이 13%를 상회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문화갈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복지 서비스의 부족, 취약한 자녀양육 환경,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동조하고 지지하는 supporter, 물질양면으로 지원해 주는 sponsor, 그리고 부모처럼 지원해주는 patron이 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개발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출입권, 이동권, 기본권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제반 권리 등을 희생한 대가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들이 받아야 마땅한 몫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 경증 장애인의 경우 통계 및 복지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50%에 불과한 충남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일, 가정 폭력과 성폭력 관련 시스템과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는 일, 다양한 여성단체 및 자원 봉사 활동들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리더십 역량을 증진시키는 일, 모든 행정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도록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정착시키는 일, 여성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국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전문한 충남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일 등 아직도 다양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러한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21세기 일류 복지사회 충남, 남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과 사회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여성, 복지, 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한국 최고의 여성정책과 복지 정책의 think tank, 그리고 교육의 메카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또 합리적인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인적자원 육성 및 관리,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만족 컨텐츠를 꾸준히 개발할 것입니다. 사회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의 중추적 기관, 젠더 거버넌스 정립의 선도적 기관, 나눔과 봉사문화 주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소임을 지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제4대 원장으로서 저는 '제2의 창원정신'으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여러분들께 저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CEO 경영마인드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둘째, 현장감 있는 실태 조사와 특화된 정책 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
- 셋째, 내실 있는 자원개발로 충남과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 넷째, 도 출연기관으로서 정책의 feedback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섯째, '공유하는 리더쉽', '상호작용적 리더쉽', '섬기는 리더쉽'으로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 여섯째, 기관 활동의 적극적인 홍보와 연구자원 마케팅을 통한 e-business를 실현하겠습니다.
- 일곱째, 세계적인 관련 기관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제가 약속드린 7가지 미션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개혁이란 내 살을 도려낼 만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취지에 함께 공감하며,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 서로의 힘을 애써 모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충남에서는 큰 혁신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11년에 걸친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심대평 지사님의 뒤를 이어 이완구 지사님께서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깃발을 내 걸고 도정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 정부에서 젊은 부지사님들이 임명되고, 공주에서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이 탄생했습니다. 과거 보수적인 충남의 정치문화에도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은 행정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개설 등 큰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마인드와 경제적 감각을 바탕으로 한 '힘 있는 충남'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충남 도정에서 불고 있는 이러한 변혁의 바람은 21세기 양성평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남 도정의 혁신이 우리 충남 여성계에도 또 한번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신선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도 이러한 충남의 역사적 소임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저명한 사회경제사학자 Eric John Hobsbawm은 20세기를 민중의 세기로 규정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상이 민중의 세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아기를 안은 어머니야말로 20세기 민중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상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문명권에 있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아기를 안은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혁명기부터 150년이나 여성운동을 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기가 바뀐 지금, 시대는 여성들에게 또 다시 역사적 소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성=평화성으로서의 여성적 리더십입니다. 평화지향적 여성성은 9·11 테러 이후 '예방적 방위'를 앞세운 21세기 신패권주의가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이즈음, 그리고 북핵 실험으로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21세기적 가치입니다.

둘째, '결과와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진정한 여성성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차별이 사라져도 숨겨진 복합적 장애가 잠재하면 '기회의 평등'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평등해질 때까지 적극적 노력과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여성에 대한 '유리천정'을 타파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일입니다.

셋째, 여성이 부패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과 경제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한 '권리, 자원, 목소리의 성 평등을 통한 개발의 성 인지화'라는 세계은행의 정책 보고서는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부패 정도는 낮으며, 따라서 여성공직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부패가 줄어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이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이처럼 "시대가 여성을 부른다"는 세기적 회두에 100만 충남 여성 한분, 한분이 모두 부응할 수 있도록 그 기원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 한명, 한명이 "Are you soft?"라는 질문에 "yes"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그 날까지 soft power의 여성성 확산을 위해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저의 취임을 알리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막대함을 새삼 느끼고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사회에서 "교수들은 죽도로 가르치지만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승부해야 한다"라고 하신 이사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의 확고한 소임 의식과 명확한 신념, 강한 추진력, 합리적인 사고,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 그리고 원칙에 충실한 객관성과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인성학습원, 충남보육정보센터, 향후 설치예정인 충남자원봉사센터와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 업무의 혁신과 조직의 변화를 통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분들 모두의 각오와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직원분들 한분 한분의 어깨마다 충남 100만 여성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늘 숙연하게 충남 여성 전체의 기대를 가슴에 담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저 역시 연구원분들과 직원분들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할 사항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린 자세로 당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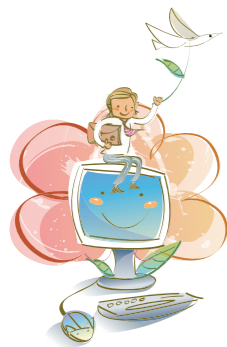


당신은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오영훈 (혜천대 교수 /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 대전지회장)



예로부터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병도 고친다는 이야기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웃음이라는 이야기까지 실로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없다. 한나라의 임금옆에는 '웃음 내시'라는 아주 이색적인 내시가 있었다. 그만큼 웃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옛부터 웃음은 늘 우리에게 여유와 풍류를 알고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요즘도 웃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지고 있다. 특히 웃음 치료사라고 해서 이제는 전문영역으로 인정받을만큼 웃음에 대한 연구와 임상적 접근이 계속되어지고 있다. 얼마전 모 방송에서 소개된 웃음치료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웃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웃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웃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웃을 일이 얼마나 있는지 손으로 꼽아도 좀처럼 셀 수가 없다. 그래서인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겨준 고등학교 수영선수의 이야기가 온 국민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이유가 그만큼 웃을일이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웃음은 어디에서 찾을수가 있을까? 재미있는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연신 재미있게 웃을수도 있고, 스스로 아름다운 공연을 보며 만족한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싱글벙글하는 커플들도 있다. 간혹 취미생활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여기에서 공통된 점을 살펴보면 결국 웃음은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찾을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건전한 여가 활동이란 무엇일까? 필자는 직업상 그런 질문을 종종 많이 듣게 된다. 그때마다 거침없이 이야기 할수 있는것이 있는데 바로 본인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다소 정형화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맞는 말이다. 즉, 웃음을 찾기 위한 가장 건전한 여가활동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할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여가활동 <표1, 현재하고있는 여가활동>을 작성해보자.

<표 1>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춤/사회적 활동/특별행사/자원봉사)	옥외활동 (자연활동/옥외활동)	문화활동 (미술 및 공예/연극/관람/취미/문학/음악활동등)
· 단전호흡 · 생활요가 · 수영 · 배드민턴 · 탁구 · 당구	· 사교댄스 · 친구만나기 · 종교활동 · 바둑 · 장기 · 각종 대회 참가하기	· 등산 · 여행 · 역사기행 · 공원나들이 · 쇼핑 · 낚시	· 그림그리기 / 서예 · 분재 / 도예 / 자수 · 뜨개질 / 종이접기 · TV시청/ 라디오 청취 · 스포츠경기관람 · 사진촬영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 (춤/사회적 활동/특별행사 /자원봉사)	옥외활동 (자연활동/옥외활동)	문화활동 (미술 및 공예/연극/관람 /취미/문학/음악활동등)
· 포켓볼 · 기타 ()	· 종교활동 · 자원봉사 · 기타 ()	· 기타 ()	· 다레(차마시기) · 수집하기 · 애완동물 키우기 · 독서 / 원예 · 노래부르기 / 악기연주 · 기타 ()

- ①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이 1개면 1개만 체크하고 10개면 10개를 체크한다.
- ②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여가를 분석해 보자
 - (가) 본인의 여가활동이 혼자(S형)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과 같이(G형)하는 것인가?
 - (나) 본인의 여가활동이 정적(M형) 인가? 동적(P형)인가?
 - (다) 본인의 여가활동이 사물(O형)에 관심이 있는가? 사람(H형)에 관심이 있는가?

예를들어 A는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일찍 퇴근하면 TV시청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간혹 회사 동료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수다떨고 술마시기것을 간간히 즐기는 편이다. 가끔 여행을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싶지만 막상 주말이 돼서 여행을 가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지쳐 대부분의 시간을 낮잠으로 보내며, 자원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 주말시간의 대부분을 낮잠으로 보내고 나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게 없어 가까운 매장에 혼자서 쇼핑을 다녀오던지 가까운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빌려보곤 한다.

본인의 여가활동

구 분	여가활동은 누구와?		여가활동이 정적·동적?		여가활동의 관심은?	
	혼자(S형)	같이(G형)	정적(M형)	동적(P)	사물(O형)	사람(H형)
① TV시청○○○	○		○		○	
② 친구 만나기○○○		○	○			○
③ 낮잠○○○	○		○		○	
④ 쇼핑○○○	○			○	○	
⑤ 비디오 보기○○○	○		○		○	
여가활동분석결과	S 형		M 형		O 형	

여기까지 작성이 되었으면 이제 본인의 여가생활 패턴이 나올것이다. A라는 사람의 여가활동을 분석해 보면 여가활동중에 다른사람과 같이 동적인 활동을 하는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주로 혼자서, 정적으로, 사물을 가지고 하는 여가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놀랍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여가활동 대부분은 SMO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하고싶은 여가활동을 권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동적인 여가활동을 갖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표 2〉 기회가 되면 하고싶은 여가활동

① 자원봉사	② 여행
--------	------

A는 본인이 하고싶은 여가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여행을 이야기 하였다. 위 사람은 대부분의 여가활동이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할때나 자원봉사 활동을 할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도록 하면 좋은 여가활동이 될것이다. 또한 본인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정적인 것보다 동적인 여가활동을 선택한 것이 매우 현명한 여가활동 선택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표1. 현재하고있는 여가활동〉을 종합해 보면 본인이 취약한 여가활동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취약한 부분을 보충해줄수 있는 여가활동〈표2. 기회가 되면 하고싶은 여가활동〉이 바람직한 여가활동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다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제한요소를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 아무리 하고싶은 여가 활동이 있어도 제한요소가 있다면 그 여가는 결국 공상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예로써, 골다공증인 환자가 등산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결국 바람직한 여가활동이란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여가활동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취약한 부분을 인식하여 좀더 발전적인 여가활동을 가져보는 것이다.

치료레크리에이션에서는 대상을 고려해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분석을 통해서 개인에게 맞는 여가활동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에 맞는 여가활동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는 것이다. 치료레크리에이션이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레크리에이션 서비스를 활용하는 의도적인 개입과정이라고 정의한다. 바로 모든 사람이 올바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여가활동을 사정하고 개입할수 있는 여지가 바로 치료레크리에이션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여가활동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본인의 생활패턴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여가활동을 찾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대전지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잘 알고 싶은 분은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 대전지부로 연락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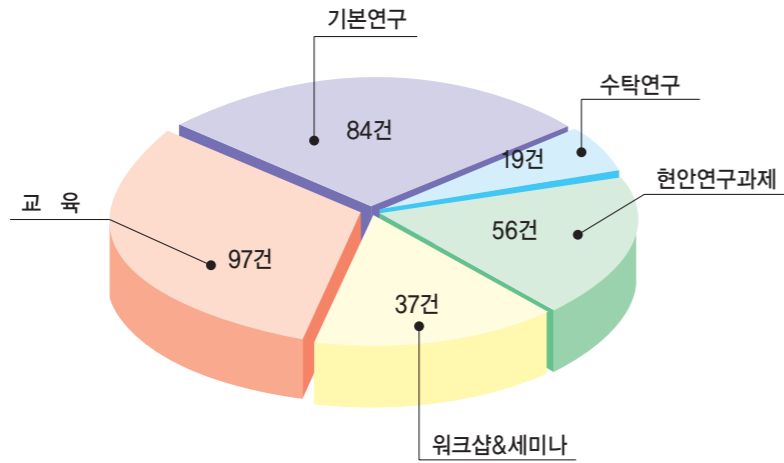
문의처 / 여가상담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 대전지회 오영훈 (011-9813-7737)
 혜천대학 연구실 (042-580-1611)

개원이후 연구·교육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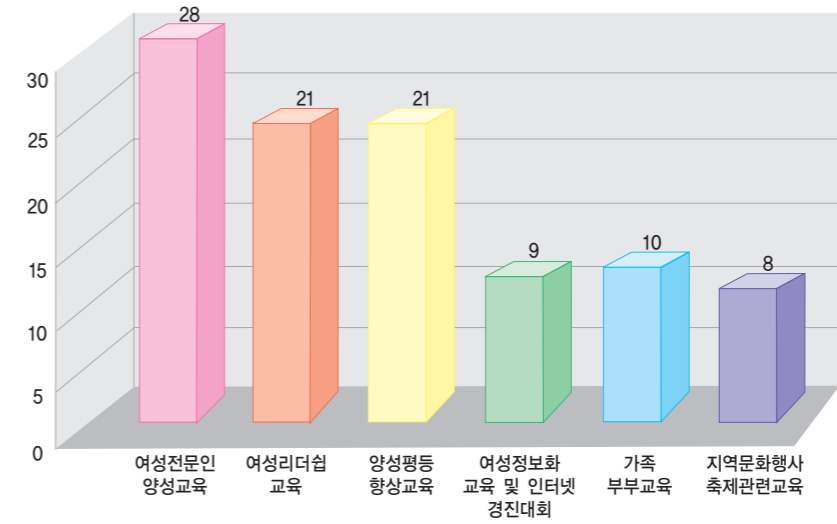


연구·교육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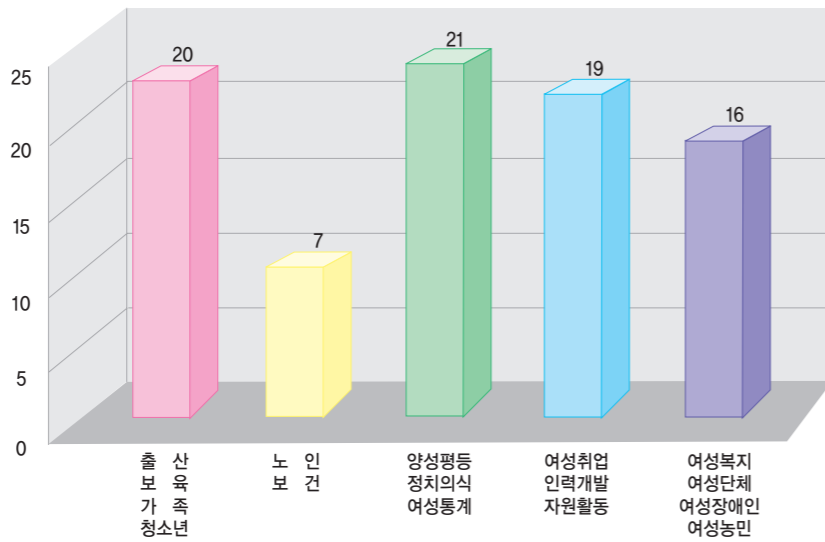
실적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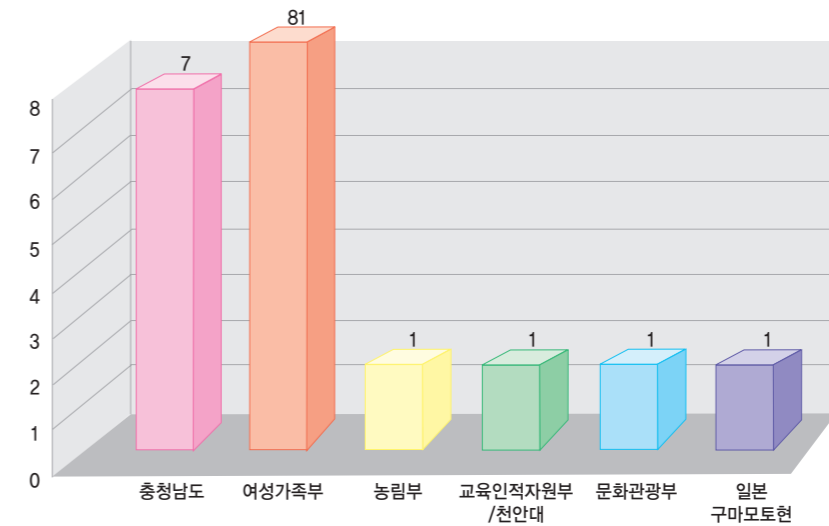
교육분야



연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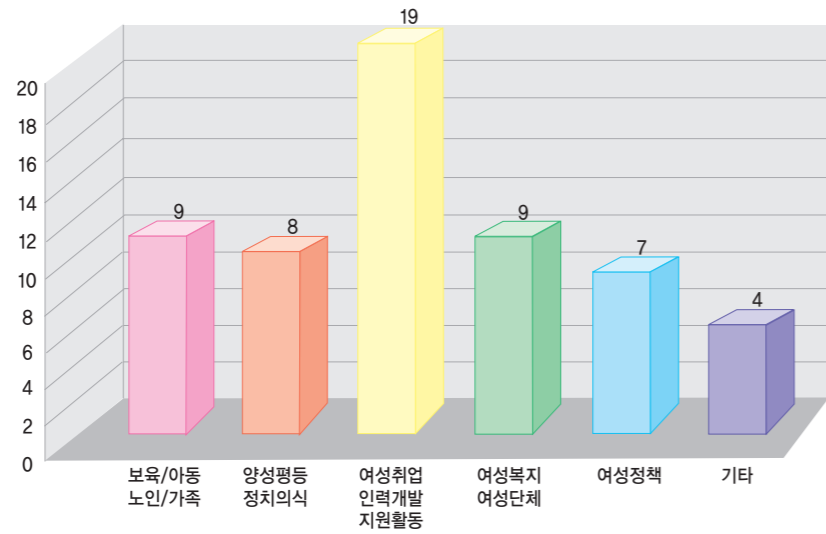
수탁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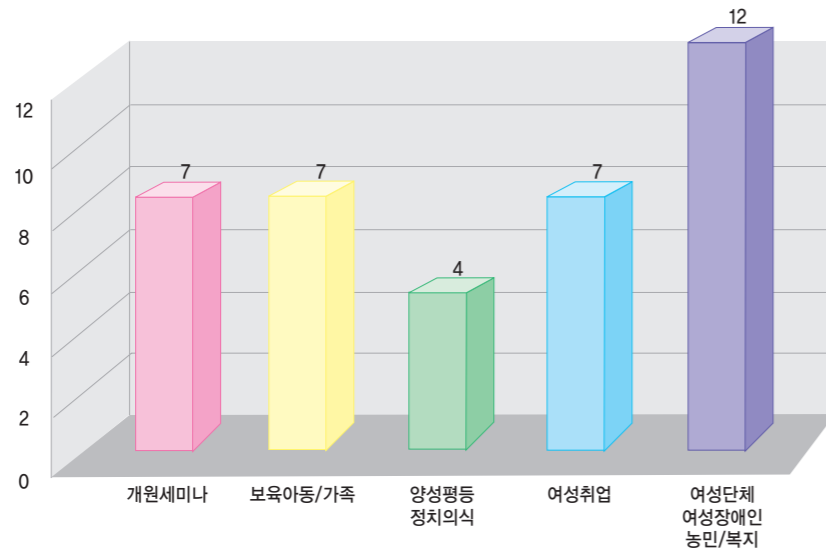


연구·교육 실적

현안자문과제



워크샵&세미나



여성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충남여성은 충남의 여성들과 전국의 여성관련 기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충남여성이 여성들의 의식화와 정보화를 이끌고 여성발전의 주춧돌로 자리하기 위해서 여성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글의 종류는 논문형식에서 생활수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의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환영합니다.

여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